금주의 기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허락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3월 26일 (토) 제 157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도널드 트럼프 신학(?) 복음 아니다!

CT, 마이클 호튼 교수의 대선 '대세' 된 트럼프가 선포하는 복음(?)의 문제점들 지적 보도

'2016 미국 대통령선거 예비경선에서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의 선전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15년 6월,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언론은 냉소적이었으며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언론 로이터는 그의 출마 선언에 대해 "경선에서 승리할 리 없는 억만장자 트럼프가 주목을 받기 위해 논란을 일으키는 전략을 취했다"라며 그의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없다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설마 했던 미풍에서 태풍이 돼가면서 그를 바라보는 눈길도 변하고 있다. 인종차별과 성적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가 인기를 높여가자 "설마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이 교차한다. 그리고 이제는 공화당 대선판을 흔드는 강력한 주자가 됐다.

공화당 주류에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하차 100일 작전"을 벌일 정도로, 이제는 '아웃사이더'에서 '유력후보'로 자리 잡은 그의 인기 비결은 뭘까?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좋아할까? 공화당 경선에서 '대세'가 돼버린 "트럼프 태풍"의 진원지에는 바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물론 복음주의자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만, 트럼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석좌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신학(The Theology of Donald Trump: Four words that reveal what his followers really believe)"라는 기고를 통해, 트럼프가 선포하는 복음(?)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고발한다.

트럼프의 신앙 배경에는 마블 콜리케이트 교회에서 52년 동안 시무하고 있는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 목사가 있다. 필 목사는 대중-심리학과 영성을 적절하게 배합해 "긍정적 사고"를 대중에게 선포해 600명의 교인에 불과했던 동 교회 교인을 5,000명까지 성장시켰다. 동시에 그의 책(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1952)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186주 연속 선정돼 "하나님의 세일즈맨"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복음주의 진영이 대선후보 대세가 된 트럼프의 신앙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긍정적인 사고의 힘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전해,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값어치 없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유명세를 타게 된 필 목사는 1953년 대선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스테벤슨(A. Stevenson)이 이혼을 했기에, 대선 후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한 케네디와 닉슨간의 대권 경쟁 중에도 닉슨과 오랜 관계 때문에, 필은 "캐톨릭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기에 미국의 문화는 위험에 빠졌다"고 케네디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의 부모는 매 주일마다 필의 설교를 들었고, 트럼프는 종종 그의 삶에서 이러한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트럼프와 그의 여동생들이 필 목사의 집전으로 결혼을 할 정도로 물론 관계까지 돈독하다.

번영신학의 아류격인 한마디로 "기분을 좋게 하는 복음"의 주창자인 요엘 오스틴(J. Osteen) 역시 트럼프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오스틴 목사는 트럼프를 "우리 사역의 친구"이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트럼프 역시 "요엘과 같이 한다는 것은 큰 명예이자 영광일 정도로,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맞받아 트윗할 정도로 서로 통하는 관계다.

따라서 2016 대선 경쟁에서 이제는 "대세"가 된 트럼프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기독교 우익의 최선봉에 섰던 인물들이다. 리버티대학 총장 제리 팔웰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비저너리들 중 한 분"이자, "멋진 크리스천 형제"라고 칭송했고, 팻 로버슨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고, 그리고 달라스제일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레스 목사는 달라스 선거유세에 모인 대중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강력한 리더이자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금은 세상적인 후보(트럼프)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소개했다.

소위 "기독교 우익"에서 이처럼 트럼프에게 일방적인 애정 공세를 보이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에서 패배했기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승자 즉 "강력한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출마에서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의 막말 기행들에서부터 대선 공약들을 통해, 신학적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다는 사실을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오바마, 연방대법관에 메릭 갈랜드 지명!

NYT, 민주, 공화 양당 간 논란 더욱 커질 것 예상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인준권을 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로 밝혀 자칫 공석 사태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지명자는 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법원 사서와 검사, 법원장으로서의 풍부한 경륜과 뛰어난 판결 능력은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대법관 진용에 진보 색채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중도 성향의 백인을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대법관 진용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보수 우위' 구도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확정될 경우, 이 같은 구도가 '진보 우위' 구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공화당은 우려하고 있다(Obama Chooses Merrick Garland for Supreme Court).

현 대법 진보 대 보수 4:4 팽팽...갈랜드는 중도온건 성향 공화, "새 대통령이 선택해야" ...오바마 정책 저지 안간힘

새로 지명된 갈랜드 법원장은 중도온건 성향으로 워싱턴 법조계에서 초당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2009년에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2010년에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에게 밀렸다.

그러나 갈랜드 판사를 임명한 배경에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이 숨어 있다. 즉, 그동안 공개적으로 지지해왔고 심지어 칭찬하기까지 했던 판사를 대법관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고 막아서려면 유권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텐데 합리적인 이유가 별로 없다 보니, 마땅한 대안 없이 덮어놓고 반대를 외치는 원칙 없는 정치인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새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 후보는 아마 갈랜드보다 더 진보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갈랜드 판사는 1990년대 중반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미 한 번 정치적인 반대에 가로막혀 1년 넘게 의회의 인준을 기다렸던 적이 있다.

〈10면으로 계속〉

[알림] 4월 2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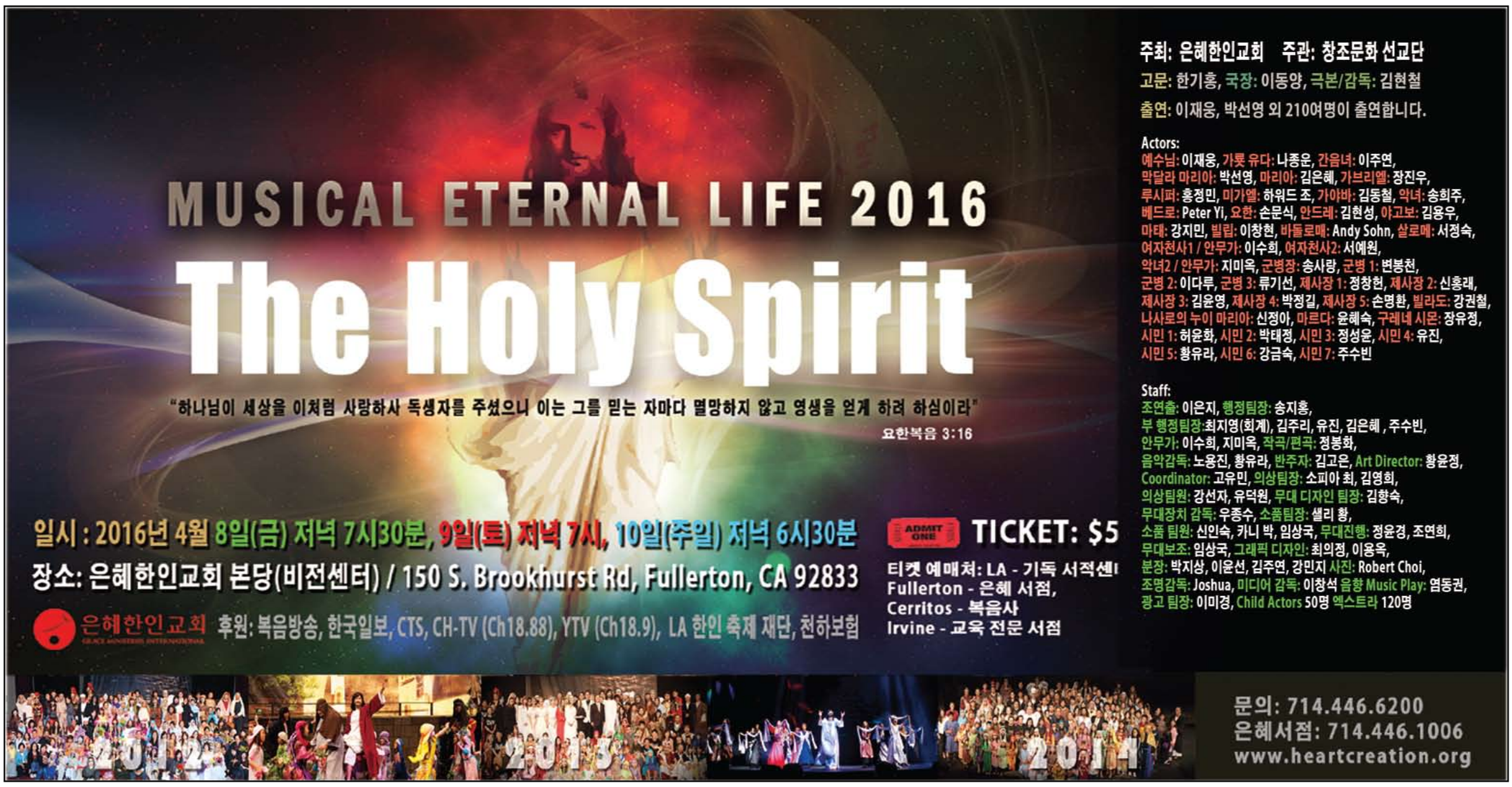
2면 인공지능 획기적 발달, "바벨탑 쌓기"?

7면 고난의 신학: 욥기에 대한 묵상 — 이승현 박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 손동원 박사

9면 인터뷰 — 뉴욕과 뉴저지 사모들을 위한 심과 영성 수련회

13면 선교의 창 — 송종록 목사



시 론

이 사람을 보라! (에케이 호모)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슈테른 베르그"라는 독일의 화가가 어느 날 한 아름다운 집시 여인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그 여인은 화실 한편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사람의 그림을 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못이 손바닥을 뚫고서 처형당했나요?" 슈테른 베르그는 무심코 "그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야"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지고 돌아가셨나요?" 그 순간 슈테른 베르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선생님의 죄도 지고 돌아가셨나요?"라는 말이, 나카! 자기를 계속 두드리고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구나!" 슈테른 베르그의 가슴 속에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은 거구나(사53:5).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슈테른 베르그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요19:5). 에케이호모(Ecci homo,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성화입니다.

훗날 "에케이 호모"를 보며 감동받은 프렌시스 헤버갈은 찬송가 311장을 씁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길을 주었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찬송을 부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에케이 호모" 앞에서 섭니다. 그림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하여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온몸을 불살랐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일으킨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전1:18). 십자가는 "슈테른 베르그에게도, 프렌시스 헤베갈에게도, 진젠돌프 백작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나요?

내가 나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피터팬증후군"(Peter Pan Syndrome), "부담회피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든 부담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앙인들도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부담이라도 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자체를 회피해버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되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러나 이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마26:39). 인류 구원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16:29). 내가 나이기에 지고 가야만 하는, 힘들고 억울하고, 차마 말 못할 사연이 담긴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의 십자가"는 내려놓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묵묵히 지고 가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청년 몇 명이 배낭들을 메고 여행하던 중 큰 냇가에 다다랐습니다. 그 냇가 앞에는 큰 돌들이 여러 개 놓여져 있습니다. 안내하던 원주민이 말합니다. 이제 돌 한 개씩을 가슴에 안고 냇가를 건너가야 합니다. 배낭이 무겁던 청년 하나가 나는 그냥 건너가겠다고, 다른 청년 한명은 잽싸게 그중에 제일 적은 돌 하나를 갖고 냇가로 들어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냇물이 갑자기 거세게 몰아칩니다. 배낭만 메고 건너던 청년, 작은 돌 하나 주워간 청년은 이리저리 흔들려 몸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돌을 가슴에 안고 건너가던 청년들은 그 돌의 무게로 휩쓸리지 않고 냇가를 건너갑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이기에 져야하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팽개치면, 풍랑이 이는 세상의 시험과 죄의 유혹 속에서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 악의 시험과 죄의 유혹의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나이기에 감당해야하는 나의 십자가는 꼭 지고 가야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나에게도 십자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십자가 능력이 나의 십자가 능력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astor.eun@gmail.com

인공지능 획기적 발달, "바벨탑 쌓기"?

Nature, 구글 알고리즘과 딥 마인드의 총체, 알파고 커버스토리로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 소개

지난주에는 연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쟁이 사람들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세돌은 프로 경력이 21년이고 우승만 47회 즉 "바둑의 최강자"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이다. "알파고(AlphaGo)"는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 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인 바둑 프로그램을 말한다. 알파고(AlphaGo)의 고(Go)는 바둑을 뜻한다고 한다. 특히 사람들은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세돌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4승1패로 알파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Google AI algorithm masters ancient game of Go: Deep-learning software defeats human professional for first time). Nature지에 실린 관련기사를 소개한다.

감성 없는 지성의 힘 인공지능, 인류에 득인가 재앙인가 논란
회복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만 가능

구글에 따르면, 알파고가 2014년 개발된 후 지난 2년간 습득한 바둑판 정보는 약 3000만 개.

사람이 1000년 동안 바둑만 둬야 도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대국을 앞두고는 3주 동안 약 3억4000만 번의 반복학습도 거쳤다. 그 뒤 이세돌 9단 앞에 바둑돌을 내려놓는 순간,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검토해 '최선의 수'를 골라냈다. 그 배경에 있는 게 강력한 컴퓨팅의 힘이라는 얘기다.

과학계에서는, 현재 알파고의 성능을 약 5000대의 최고 성능 컴퓨터가 동시에 구동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 눈에는 알파고가 한국에서 랩톱 형태로 이세돌 9단 앞에 '앉아 있는' 듯 보이지만, 실체는 미국 중서부 구글 데이터센터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국장에 놓인 컴퓨터는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짜 알파고'의 판단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바둑에서 '인간 최고'를 이길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 구글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지원해 이를 실현했을 뿐"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알파고의 승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 등에서 묘사된 '인공지능의 인간 지배'가 머지않아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학자인 제리 카플란 미국 스탠퍼드대 법정보학센터 교수는 그의 저서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점의 지구를 "햇빛과 고독만이 존재하는 유리 사육장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맞아들였던 기계 경호원들이 가끔씩 끼어들어 모두 순조롭게 돌아가는지 살피는, 벽과 담장 없는 동물원"이 될 수 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하다.

먼저 인공지능의 혁신이 인간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적잖다.

구글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 중인 과학저술가 레이 커즈와일은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5년이 되면 사람 뇌 안에 나노 로봇을 넣어 뉴런의 상태와 활동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때가 되면 기계가 지금 같은 인간의 보조 장치 수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게 커즈와일의 전망이다.

미국 컴퓨터과학자 빌 조이도 나노테크놀로지와 로보틱스, 유전공학이 합쳐지면 개인의 두뇌 전체를 생체로봇에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미래에 도달하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하는 이도 적잖다. 특히 연산을 벗어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수많은 인공지능학자는 기계가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감정을 갖도록 하는 데 연구를 집중하는 상태다. 특히 인간의 감정과 느낌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시각, 청각, 후각 및 촉각 분야 연구가 활발하다.

미국 MIT 감성컴퓨팅 연구팀은 컴퓨터가 사람의 얼굴 표정, 눈의 움직임 등을 인식해 감정을 읽는 능력을 모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음성인식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짜증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 그룹은 기계 표면에서 아홉 종류의 서로 다른 정서적 감촉, 즉 간질이기, 찌르기, 긁기, 찰싹 때리기, 쓰다듬기, 토닥거리기, 문지르기, 누르기 접촉 등을 인식하도록 설계한 신경망 장치 '허거블'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들 장치는 아직 인간의 '인풋'을 인식하고 미리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아웃풋'을 내놓을 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감정적 대처는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거블'의 경우 요양병원 환자 등이 '자신'을 안거나 쓰다듬으면 해당 접촉 및 자극의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여섯 가지 반응을 보이지만, 이는 약속된 결과에 불과하다. 이런 약속된 반응이 언젠가 진짜 감정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감성을 가진 인공지능 컴퓨터 운영체계(OS)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그녀(Her)"에서도, 주인공인 OS 서맨사는 연인 테오도르에게 "What's wrong?"이라고 물어놓고는 테오도르가 "How can you tell something's wrong?"이라고 되묻자 "I don't know. I just can"이라고 답하고 만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도널드 트럼프 신학(?), 복음 아니다!

노만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와 '번영신학' 분위기서 성장
(1)기본권만 가진 인간 (2) '내가 먼저' 윤리 (3)예수의 브랜드화 (4)실용주의 리더십

〈1면에서 계속〉

1. 창조

트럼프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창조론을 포용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항상 존중해야하는 개념 대신, 기본 권리들만을 가진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인간을 고문하는 것은 국가의 합법적인 정책, 즉 미국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고문의 효과를 확신한다며, 테러 용의자를 상대로 "물고문이나 더 심한 다른 방법들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서구 문명 안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공정한 전쟁" 전통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인종혐오단체인 KKK와의 연계설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2. 죄

2)이러한 "내가 먼저" 윤리는 "나는 아니지"라는 회피로 연결된다. 즉 "죄인들"은 우리가 아닌 "타인들"로 전가된다. 따라서 우리가 아닌 타인들은, 죄인들이기에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된다. 죄를 이처럼 우리가 아닌 타인에게 전가시키게 되면, 죄인이 아닌 우리를 지키려는 자기 방어 작용으로 타인들에게 분노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은 단번에 살인자요, 강간범이 되어, 쫓아내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에 빠져들게 된다. 중국인은 환율을 조작하는 사기꾼이고, 한국은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안보 무임승차 국가가 된다.

3. 그리스도

예수는 점점 더 브랜드이자 문화적-정치적 마스코트가 된다. "복음주의적"이라는 말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계5:9)" 만드신 광의의 커뮤니티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엡4:5)라는 말씀처럼 하나가 된다. 따라서 크리스천을 지칭하는 궁극적 척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러나 트럼프는 크리스천을 미국인, 또는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으로 규정한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상실한 사회적-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심지어는 인종적으로 우월한 미국을 재건하고 보존하는데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만 "미국이 다시 위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안에서(in Trump)"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될 수 가 있다. 이것이 그의 복음이다.

4. 리더십

트럼프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분명히 백인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보여주는 나르시즘과 욕심,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보여지는 속임과 거짓을 축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일을 완수"하는 능력을 바로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결국 실용주의가 최상의 원칙이자, 삶의 동력이 되고 있다.

반면에, 예수는 점점 더 다가오는 사망과 부활 사건 안에서 "권력이나 힘"이 어떻게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다(요13장).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채, 유월절 음식을 먹다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다. 요한은 반복적으로 예수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거부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앞둔 상황에서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에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베드로의 발마저 씻기셨다.

여기에서 사용된 겉옷을 "벗는다(taking off)"는 동사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는 말씀에서 같은 동사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자기-희생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피를 통해 세워졌고, 이 보혈을 믿는 자들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 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눅22:25)"와는 대조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이며 섬기는 리더십이다.

물론, 미국과 같은 이방 왕국에서는 이러한 구속적인 은혜의 영역이 닿지 않는다. 강철로 된 창검으로 질서와 안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들을 수호해야만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 리더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권위와 힘이 바로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손수 버리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발원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론으로, 2006대선에서 막강한 '대세'가 돼버린 트럼프를 따르는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복음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점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영성이 만약 "단지 도덕적이고, 치료적인 이신론(사회학자 Christian Smith의 정의)과 실용주의(William James)의 조합"이라면,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적격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면에서 계속〉

'wrong'이라는, 인간이 삶과 진화를 통해 습득한 그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치아 카쿠 뉴욕시립대 물리학과 교수 역시 저서 "마음의 미래"에서 "인공지능은 큰 발전을 이뤘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산능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개선됐다. 그러나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분야의 발전 속도는 지루할 정도로 느리다. 아직 로봇은 자신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평했다.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승리했을 때 환호한 것이 알파고 '본인'이 아니라 알파고 개발사 구글 딥마인드 관계자들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인공지능의 속성은 최근 많은 영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일대 '생명윤리를 위한 학제간 센터' 연구자 웬델 월러치는 저서 "왜 로봇의 도덕인가"에서 "인공지능은 현재 논리적인 플랫폼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점은 도덕적 과제에 대응하는 면에 있어 컴퓨터가 인간 두뇌보다 더 나은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컴퓨터는 어떤 과제에 대응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이 고려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사항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9면으로 계속〉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 137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거두어들이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없는 것만 가득했습니다. 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였습니다. 쭉정이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여 많은 것을 바다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인생의 수고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현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현실에서 그 가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그것을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땅에는 기근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이 만난 현실의 삶의 환경은 조상이 대대로 살았던 갈대 우르보다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타나시는 곳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롯은 요단강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곳에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여야 하고, 그 은혜를 거두어들이는 훈련을 하여야 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채우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광야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망의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제 구원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많은 별빛을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만 찾지 말고,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거두어들이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에서 그 은혜를 거두어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 받은 나의 마음에 주인의 은혜를 거두어들일 때 행복하여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행복하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면 잠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하지만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창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피곤한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거두어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보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사막에도 광야에도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이는 환경에서 때때로 기근을 만납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에도 광야에서도 예비 되어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을 마음에 담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에서 그 은혜를 많이 거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세상입니다. 비록 밤이지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주신 것을 알고 바라보며 거두어들이며 주인의 영광이 반사 되는 인생을 삽시다. 자, 이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눈을 떠서 바라봅시다. 가까이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나의 복이 되시는 성령으로부터 그 은혜는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11:25)

예수 다시 사셨네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평신도연합회와 함께하는

오렌지카운티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 일시: 2016. 3. 27(주일) 오전 5:30 Tel. 949.261.9100
• 장소: 얼바인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띵크(Think)

일전에 페이스북에 업로드 된 노숙자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중년 남자가 길에서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세요'(I'm blind. Please help)란 글귀가 새겨진 카드 보드를 계단에 세워놓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한 여성이 그의 카드 보드 뒷면에 새로운 글귀를 적어 놓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돈을 건넵니다. 여성은 카드 보드 뒷면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난 그걸 볼 수 없네요'(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 맨 끝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키세요'(Change your words. Change your world).

말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새뮤엘 스마일스(Samuel Smiles)의 말처럼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잘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의 원천이 인간의 자아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기 최면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집어 생각하는 역발상을 시도해봅니다. '자살'을 '살자'로, '내 힘들다'를 '다들 힘내'로, 'evil'(악)을 'live'(살자)로 거꾸로 혹은 뒤집어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현대가 중동에 진출했을 때 '낮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서늘하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된다'고 말한 고(故) 정주영 회장이 역발상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주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원천도 자아이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이 잘되고 성공한다는 성공주의에 뿌리를 둡니다.

예수님께서도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 만사형통한다, 모든 일이 잘된다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롬8:6).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 3:2).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 진정한 생각의 변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기발한 역발상의 생각도 인간에게 잠시 위안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생각의 변화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최면술적인 생각으로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생각이 변화 받지 못하면 고장 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을 바로 살려면 생각, 띵크(think)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고장 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바르게 다스려야 미래가 열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푸/ 른/ 초/ 장

옥영철 목사
(페어필드한인교회)

영적 아비. 어미가 되라

(고전4:14-16)

1. 생명의 변화 / 출생과 성장과 재생산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생명체는 출생과 성장과 재생산을 한 후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을 중생, 거듭 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변화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하지만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장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는 기쁨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는 양식이 되어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씨앗이 됩니다. 이와 마찬 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농부로 비유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 /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엡4:13).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지를 '아비'라는 단어로 집약시켰습니다.

'아비'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주님이 불러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자칭 사도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네가 사도 맞느냐?"라고 비판을 겸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 비난과 비판에 대하여 억울해 하지 않고, 사도성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음이라."(15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 성장의 방법 / 잘 먹고, 싸고, 일하고, 쉬면된다.

동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길은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배설하고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이 외에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죄는 회개로 배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면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일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안식, 쉼을 얻는 삶이 되면 정말 건강하게 새 생명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갓난아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장성할 때까지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돌본 것입니다.

4. 일만 스승과 많지 않은 아비 / 모든 성도는 아비·어미가 되어야 한다.

수년을 교회 다녀도 배고프다고 젖병을 찾고, 축축해진 기저귀 짜증난다고 우는 성도를 종종 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교사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일만 스승을 두고 배우고 익히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많이 배워 스승이 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스승이 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아비·어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아비·어미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합니다. 낳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너희는 나를 본 받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너희도 나와 같이 영적 아비가 되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본을 믿음의 본을 보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비, 어미 된 자는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갈5:22-23).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아비요, 어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른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어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가 바로 연장자로써 어른이라는 뜻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 길러본 전도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비, 어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일원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를 본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였고 그 전도된 새 생명을 위해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 받아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성장 후 열매 / 전도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공동체는 생명체로써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성장하여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비.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아비 어미가 되면 되레 자녀를 죽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은 만큼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은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기에 비판을 넘어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거리에서 머리를 잡고 싸우고 있는데 "아이고 00집사님 여기서 왜이래" 하는 것이 성도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작금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의 비판과 멸시에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종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 질 것입니다. 그 충성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아비'입니다. 그 아비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13)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비요 어미이며 어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 받아 아비, 어미가 되어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ycok153@gmail.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First thing First! 무엇을 위하여 투표할 것인가?

다음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말씀적용 능력, 하나님 경외, 인격, 신뢰성, 돈 문제 깨끗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시33:12).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144:15)

오늘부터는 지난번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의 자격에 가장 가까운 대통령 후보자가 누구일지 아직 대선경주에 남아있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실제적인 전력(track of proven record)과 이미 증명된 그들의 삶의 사실근거들을 살펴보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별력 있는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기도하며 나눕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도자는 1)능력이 있는 사람(말씀적용에 대한 능력 –아브라함, 요셉, 다윗 같은 인물을 생각하면 됨) 2)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3)인격이 갖추어진 사람 4)신뢰성이 높은 사람 5)돈 문제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정책

출애굽기 18장을 기준으로 할 때,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자격미달이 되어버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반기독교 정책으로 인해 민주당 전체가 2012년에 기독교의 핵심인 결혼관, 생명관, 그 외 신앙의 자유 등 "정당" 자체를 법적으로 반기독교적 정책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자들로 나온 힐러리와 샌더스 중 누가 대통령으로 뽑힌다고 해도 지난 7년간 계속 깊어만 가는 미국의 심장부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영적 암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여 통과시킨 핵심 법안들 몇 가지로서 그들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뒤집어지지 않을 법안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정당에 대해 알려드리는 목적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통과된 "동성결혼 합법화"

▲무분별한 낙태 및 아기 장기들까지 불법으로 팔고 있다는 것이 몇 번이나 증명된 낙태기업인 Planned Parenthood에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년에 50만불이 넘는 후원금을 줄 것이며

▲"차별금지법안"을 통해 동성애자들(LGBT)만 보호하고 그들 삶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역차별하고(주로 크리스천들) 벌금까지 물게 하는 법안을 더 강화시킴으로 크리스천들, 목회자들은 더 많이 감옥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역차별로 벌금, 감옥에 간 수많은 사례들이 몇 년간 쌓이고 있고요.

예) 미 전역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남녀 혼용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법안이 계속 통과될 것이고, 주목할 것은 그들의 책상 위에는 "소아성애자"들도 범죄자가 아니라 "성적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바꿀 계획을 이미 몇 년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버니 샌더스는 소아성애 및 불건전한 성관계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의 성관계를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소아성애를 홍보하는 책을 지지한다는 글을 2015년 10월 중순경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이슈가 되었으며, 1972년에는 그가 직접 쓴 3개의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한번에 서너명의 남자들에게 강간/성폭행 당하는 것을 한번쯤은 환상(fantasize)한다."

▲미국 안에 이미 들어온 ISIS 및 무슬림에 대한 확실한 정책이 오바마대통령과 전혀 다를바 없기에, 미국의 국가적/자녀들의 안전도(ISIS에 가입하는 자녀들이 자꾸 늘어남)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슬림을 옹호하는 법안을 통해 크리스천만 더 강하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무슬림에 대한 "신앙의 자유"는 학교, 공공장소에서 법적으로 보호하지만,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계속 심하게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무분별한 성교육과 Common Core로 인해 떨어지는 교육 수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한 법안들이기에 민주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을 뒤집지 않을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연장선이 될 것입니다.

힐러리는 연설 때마다 "America is already great-미국은 이미 위대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지금 그럴까요?

공화당은 어떤가요?

공화당은 "정당"으로는 민주당에 비해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고수하는 편이지만, 서로 연합하지 못하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 정치인들이 그 안에 많아 공화당 안에서도 보수파 대자유정치파로 갈리는 모습을 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부패되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자 1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수적인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며,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신뢰성이 높은 인물일까요?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트럼프의 전력:

그가 연설 때마다 말로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조사결과 실제적인 전력은 그의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동성결혼을 공공연히 지지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동성결혼식들에도 참석하고, 강력한 동성애 운동팀들에게 후원금까지 보낸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12년 그의 세금보고를 조사해보니 트럼프가 3만달러씩이나 동성애 단체에 기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2만달러는 아주 강력한 GLSEN이라는 동성애 단체에 주었습니다. 나머지 1만달러는 Gay Men's Health Crisis(동성애자들의 건강)에 주었다는 기록들이 증명됐습니다.

GLSEN이라는 단체는1990년에 공립학교 안에서 시작한 동성애 단체인데, 매우 위험한 변태적인 성교육까지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정상이라고 홍보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홍보하는 것들의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는 동성애 항문성교가 괜찮고 즐거운 것으로 가르치고 심지어 '유치원부터 아이와 어른의 성관계(소아성애) 같은 것도 성교육에 포함시켜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학교마다 다니며 주장할 정도입니다.

트럼프의 신뢰성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적어도 5번 이상 소속 정당을 바꾼 것이 여러 조사결과에서 증명되었습니다(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5/jun/16/donald-trump-changed-political-parties-at-least-fi/)

△민주당에 여러번 후원금 전달: 1989년에서 2010년까지 그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게 준 것이 총 600,000달러가 넘습니다. 2006년에는 77,200달러를 민주당에 주고 24,250달러를 공화당에 후원했고요. 2004년에는 민주당에는 40,500달러를, 공화당에는 17,250달러를 주었다는 보고서입니다(http://dailycaller.com/2015/06/03/donald-trump-donated-heavily-to-democrats-especially-during-election-which-put-reid-and-pelosi-in-power/)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논할 수 없지만 트럼프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며, 그가 다니고 있다는 교회에서는 트럼프를 그가 이야기한 거처럼 "active member" 로 생각하기 어렵다 고 한 것입니다 (http://www.cnn.com/2015/08/28/politics/donald-trump-church-member/).

〈6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수난 후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새벽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러면 육체는 무덤에 장사지낸바 된 후에 영혼은 그 3일간 어디로 가셨는지요? 어떤 분은 벧전 3장 18-19절과 벧전 4장 6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하버시티에서 정 장로

A: 이것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육체는 무덤에 장사지낸바 되시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셨는가? 로마캐토릭에서는 옛 전통에 기초하여 선조림보(limbus patrum)에 가서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말합니다. 선조림보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구약성도들에게 전도하시고 하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내려가셨다(He descended into hell)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루피누스의 신경, 6세기의 갈리칸 신경, 고대 로마형의 신경, 로마캐토릭에서 공인한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우리 2세들이 사용하는 영어 사도신경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사도신경의 He descended into hell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을 빼야 합니다. 한국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히폴리투수의 문답식 신경(215) 예루살렘의 씨릴의 신경(4세기) 가이샤랴의 신경(325) 니케아 신경(325), 말셀루스의 신경(340) 콘스탄티노플 신경(381) 칼세돈 신경(451)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descedit ad inferna inferos)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캐토릭이 시16:10, 엡4:8-10, 딤전3:16, 벧전3:18-19, 벧전4: 4-6 등의 말씀을 자신들의 연옥설교리에 일치하도록 잘못 해석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는 그리스도 영적 고통의 한 표현

요한 칼빈 선생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 2권 16장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표현하나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영적 고통의 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제44부분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표현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 능하신 주경신학자인 이순한 목사님의 공동서신 주석 벧전 3:18-19절을 보면 주동사가 부정과거형으로 나왔습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옥에 있는 이들에게 전파하셨다는 전파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에케-릭센으로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을 쓸 때에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라고 씁니다. 그래서 전파했다는 표현은 부활 후에 그의 부요하심, 그의 능력, 그의 승리의 개선을 선포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대표적인 인물이 헬만 바빙크라는 화란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사도신경의 He descended into hell은 그리스도께서 칼빈의 말처럼 십자가의 수난이 지옥의 고통을 당한 것으로 상징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영어 사도신경에서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 후에 구원의 기회가 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4:43) 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죽음 후에 낙원에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플로리다주 탬파에 소재한 새빛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청빙대상:
연령: 40~49세 미 남침례교단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
신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언어: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

제출요령:
제출마감: 2016년 4월15일 입니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가족소개포함)
방법: 이메일 NLCCommittee@gmail.com

일정계획:
4월중: 신청서류 제출마감
* 1차 서류심사 후 추가서류와 자료 요청
4월중: 온라인 인터뷰 및 추가 정보 요청
4월말: 최종 후보 명단을 선정
5월초: 최종 후보 2차 인터뷰와 교회 방문
5월말: 청빙결과 발표
* 일정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회주소: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홈페이지:WWW.KFBCTAMPA.ORG

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교육국 BPPE CODE 94874 (e)(1)인준학교
총장 이동규 박사
chongshinuts@gmail.com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213)422-8916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로고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쉼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 주세요
Cell.(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돈도(Dondo)

인도네시아의 Sulawesi 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1만5천 돈도족은 토미니(Tomini)라고 알려진 더 큰 인종 그룹의 한 작은 그룹이다. 그 이름은 지리학적, 언어학적 이름이고 가까운 이웃으로는 Gorontalo족, Buol족, Kwandang족이 있다. 토미니족의 다른 그룹에는 Tolitoli족, Laudje족, Dampelas족이 있다.

모든 토미니 언어는 이해하기 쉽고, 다른 이름들은 단지 그들의 방언들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각 그룹은 그들 자신 고유의 언어를 가진다고 알려졌다. 다양한 토미니 언어는 15세기 이슬람이 들어오기까지 서로 고립돼 있던 수많은 무역 제국들로부터 비롯됐다. 토미니 문화의 역사는 네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이슬람의 도래, 화란 식민지 시대, 일본의 점령, 독립 후이다. 토미니족은 화란 선교사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슬람 특성이 강하게 남겨졌다.

삶의 모습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빠르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 나라는 300개가 넘는 인종 그룹을 갖는,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하며 대부분이 이슬람인 국민으로 구성된다. 그 지역의 역사는 작은 왕조의 흥망성쇠 역사이고 방어와 정복을 위한 일시적 연합의 역사다. 그 지역은 원래 Toradja족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토미니족(Dondo족이 한 그룹인)은 세습되는 족장과 고문회의에 의해 지배되는 각 부족과 술탄에 의해 지배됐으며 왕실, 귀족, 평민, 노예, 네 계층이 존재한다. 독립 후 이전의 raja(왕)들과 그 가족의 일부는 정부에서 자리를 가진 반면, 다른 이들은 사업가가 됐다.

1950년대 말 Sulawesia 젊은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항해 분리주의 운동을 주도했다. 토미니 지역에서 이 운동은 1960년대 Permesta Rebellion으로 절정을 이뤘으며, 몇 년 동안 그 지역은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후 정부는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정향유가 성공적으로 생산됐고 목재 회사가 시작됐다.

연안의 돈도족은 "copra"(건조 코코넛으로 만든 오일)나 야자뿐 아니라 정향유 생산에 매우 적극적이다. 많은 사람이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이들은 벌목이나 선원으로 일한다. 산지 돈도족은 쌀, 옥수수, "sago"(야자의 일종)를 재배하고 연안 장사를 위해 등나무 줄기를 모은다.

돈도 마을은 주로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작고 대말 위에 집을 짓는다. 결혼식은 무슬림식을 따르고 중매인에 의해 이뤄진다. 이 "중개"는 또한 신부의 값을 정하는데, 소녀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다. 사촌간의 결혼도 선호되고 다처제가 허용되지만 돈도족에서는 드문 일이다. 결혼하면 첫 아이가 생길 때까지 신랑이나 신부가족과 함께 산다.

신앙

이슬람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현저한 종교이고 인구의 대다수가 믿고 있다. 14세기 이전에는 힌두교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지금은 소수만이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4%가 기독교인이고 주로 개신교인데 많은 중국인들은 Buddhist-Taoist 가르침을 따른다. 애니미즘 신앙은 먼 거리의 부족들에 의해 믿어진다.

돈도족은 비록 산지에 애니미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무슬림이다. 애니미즘을 믿는 이들은 외부 부족을 뜻하는 "suku terasing"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은 이주를 포함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수 백 명의 돈도 기독교인이 있지만 교회성장과 복음전도에 필요한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기도와 선교의 노력이 작은 돈도교회가 굳게 서는데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법원 "동성결혼반대 정치인에 협박메시지 남긴건 유죄"

동성결혼 제도에 반대한 지역 정치인에게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남긴 미국 50대 남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8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역 정치인의 동성결혼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전화로 협박을 가한 스티븐 보나(52)의 중범죄 혐의 3개 가운데 2개에 대해 지난 17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

동성애자인 보나는 지난 2013년 3월 공화당 소속의 주하원의원 진 아이브스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성결혼 반대" 주장을 펼친 후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 2개를 남겼다. 당시는 일리노이 주가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한창 논란을 벌이던 때였다. 음성 녹음에는 "당신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안다", "공격무기 금지법 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아이브스 의원을 비하해 부르는 말도 남겨져 있었다.

일리노이 주 검찰 로버트 벌린 검사는 "보나의 발언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벌린 검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에 참석한 아이브스 의원은 "녹음을 듣고 겁에 질렸으며, 자녀들 안전이 걱정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보나는 "실제 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며 "동성결혼과 총기 규제 등에 대한 아이브스 의원의 발언에 화가 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스포츠용품 유통업체 인사부에서 일하는 보나는 전직 시카고 경찰과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일리노이 주가 2013년 11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후 결혼했다. 보나는 "바른 시민이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검찰은 배심원단에 "이번 재판은 동성결혼이나 총기규제,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위협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보나가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받게 될 것이며 집행유예 옵션도 있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북한, 억류 미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1)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신화통신과 AP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AP통신은 "북한 최고재판소가 숙소 호텔의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 웜비어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웜비어는 이날 오전 한 시간 가까이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체제 전복 혐의로 기소됐다. 웜비어는 재판에 앞서 훔친 선전물을 친구 어머니에게 "전리품"으로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웜비어가 지난달 29일 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 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범죄행위'를 사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학생인 웜비어는 중국 시안(西安)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2일 출국 과정에서 구금됐다.

북한의 웜비어 억류와 재판은 북한 핵 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진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 웜비어는 현재 북한에 수감 중인 북미 국적자 3명 중 한 명이다.

앞서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큰빛교회 목사가 작년 12월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62세의 귀화 미국인인 김동철 씨도 간첩 혐의로 북한에서 체포돼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스에 온 난민들 터키로 송환…EU, 터키에 4조원 지원

유럽연합(EU)과 터키 정부 간 난민송환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 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일부터 그리스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들(refugees)과 이민자들(migrants)은 터키로 되돌려 보내진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날 오전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협상에서 핵심 쟁점들을 타결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체코 보후스라프 소보트카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터키와의 난민송환 안이 합의됐다"는 글을 올렸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도 트위터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늦게 공식 서명될 합의안은 터키 정부의 양보를 뜻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터키는 난민을 되돌려받는 대신 오는 7월 이전에 EU 가입 협상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U는 또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캠프 지원을 위해 30억유로의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터키는 송환되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것을 포함해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시리아 난민 '1대 1' 재정착 원칙도 그대로 남았다. 이 정책은 그리스에 온 난민 1명을 되돌려 보낼 때마다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명을 유럽에서 정착시킨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유럽에 재정착할 시리아 난민은 7만2천명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EU의 시리아 난민 유럽 재정착은 중단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앞서 EU 정상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터키에 제의할 EU 측 제안에 최종 합의했다. EU와 터키는 지난 7일 난민 대책 특별정상회의에서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적인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인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터키는 난민 재수용 대신 ▲2018년말까지 30억유로(약 4조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길 것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화 ▲시리아 난민 '1대1 재정착' 등이었다.

EU-터키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EU와 터키 간 합의로 난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EU와 터키가 난민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터키가 송환받은 난민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EU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터키로 돌아가라고요? 차라리 여기서 죽을래요"

15년째 내전이 이어진 고국을 떠나 유럽 첫 땅에 발을 디딘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기쁨은 잠시였다. 자식 5명과 함께 터키에서 출발한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해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한 메리아 아제미 씨는 다시 터키로 송환될 거라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연합(EU)과 터키가 합의한 난민 송환 계획의 시행 첫날인 20일 레스보스 섬에 오른 아제미 씨의 절규를 전했다. "안돼! 안돼! 안돼!"라고 비명을 지른 그는 "제발, 터키는 안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터키로 보내든지 하세요"라며 울부짖었다.

남편을 잃고 자식 7명을 키우던 그는 두 달 전 유럽행 밀입국 비용 2천500 파운드(약 421만원)를 마련하려고 두 딸을 팔다시피 시집보냈다. 남은 자식 다섯을 데리고 이란, 터키를 거쳐 이날 EU 밀입국에 성공한 그는 이제 전 재산은 170파운드뿐이라며 터키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다리와 딸의 손에 든 멍을 보여주며 "지난 2주 동안 그들(터키 당국)은 우리를 추운 길거리에 음식도 주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은 우리를 다시 차에 실어 돌려보내려고 거의 죽이려고 했어요. 도대체 누가 터키가 안전하다고 말한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제미 씨처럼 이날부터 그리스 섬들에 도착한 모든 불법 이주자들은 EU의 송환 계획에 따라 터키로 송환될 운명에 놓였다.

다만 EU와 그리스 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실제 송환이 이뤄지려면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EU와 그리스는 국경 경비대와 경찰, 망명 절차를 처리할 관리, 통역사, 추방을 결정할 판사 등 인력 4천명을 동원하기로 했지만 레스보스 섬에는 군인과 진압경찰만 있었다.

레스보스 섬에서 활동하는 영국인 구호단 직원은 "아직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이 이주자들이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섬 앞바다에서 그리스 해안경비대에 구조된 이주자 베하르 마스투라 씨는 "우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그들(그리스 당국)이 우리에게 한 것은 이 손목밴드뿐이다. 004-119라는 번호를 받았다. 이제 독일에 갈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레스보스 섬에 마련된 난민 시설의 당국자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EU와 터키는 지난 18일 터키가 그리스로 건너간 난민을 재수용하는 대가로 EU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EU 가입 협상을 가속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힐러리-트럼프 '미니 슈퍼화요일' 완승

미국 민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5일 경선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미니 슈퍼화요일' 결전에서 나란히 큰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두 후보는 각 당 레이스의 대세를 확고히 굳혔으며 대선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자유무역협정 지지자로 몰아세우며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 대대적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5개 주에서 전패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텃밭 플로리다 주에서 트럼프에게 완패한 끝에 결국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의 탈락으로 공화당 경선 레이스는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3파전으로 가게 됐지만 트럼프의 독주를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미 언론은 케이식 주지사가 승자독식제로 치러진 오하이오 주에서 승리함에 따라 트럼프가 6월7일까지 진행되는 경선전이 종료되더라도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어떤 후보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7월에 '중재 전당대회'가 열린다. 공화당 수뇌부는 이 전대에 개입해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를 배척하고 다른 후보를 선택한다는 구상이어서 최종 대선후보는 누가 될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CNN 등 미 언론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승자독식제로 치러진 오하이오 주에서 패배함으로써 공화당은 어떤 후보도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원들이 모여 트럼프나 그의 경쟁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당 대선후보로 선택하는 1세기에 한번 할 무대를 마련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2일 오전 1시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은 총 5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246명의 대의원이 걸린 플로리다 주와 121명이 걸린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2개 주에서 압승을 거뒀다.

또 '러스트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중부 오하이오 주(대의원 159명)에서도 당초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샌더스 의원을 크게 이겼으며, 역시 '러스트 벨트'에 속한 일리노이(182명) 주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대의원이 84명으로 가장 적은 중부 미주리 주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초접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6개 주 가운데 승자가 대의원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로 치러진 플로리다 주(대의원 99명)와 미국령 노던 마리아나제도(9명)를 비롯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미주리 주 등 5곳에서 승리했다.

유세장 폭력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가 탄탄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트럼프는 오하이오 주에서는 이 지역 주지사인 존 케이식 후보에게 패배했다.

케이식 후보는 역시 승자독식제를 취한 이곳의 승리로 66명의 대의원을 챙기게 됐으며 '공화당 주류의 희망'이었던 루비오 의원을 대신해 주류의 대표주자로 부상할 기회를 갖게 됐다.

WP는 케이식 주지사의 오하이오 주 승리에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후보도 공화당 후보로 확실히 지명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공화당이 중재 전당대회 모드로 급속히 굴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크루즈-루비오 단일후보 못이겨…단일화 최대변수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주류 진영의 두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두 상원의원이 단일화 할 경우 누가 나서든 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크루즈, 루비오 두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가 공화당 경선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8일 공개된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의 공동 여론조사(3월3-6일·1천명)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현행 다자 구도에서 여전히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해 각각 25%, 18%에 그친 크루즈 의원과 루비오 의원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크루즈, 루비오 두 의원에게 모두 밀렸다.

크루즈 의원이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두 사람의 지지율은 54%대 41%로, 크루즈 의원이 13%포인트 앞섰다. 또 루비오 의원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는 45%에 그쳐 51%를 얻은 루비오 의원에게 6%포인트 뒤졌다.

지지율 격차로 본 경쟁력은 루비오 의원보다는 크루즈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크루즈, 루비오 두 의원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주류 진영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 출신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필두로 한 주류 진영은 노골적으로 '트럼프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트럼프 돌풍을 저지하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면에서 계속〉

△깨끗하지 않은 돈 문제: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의 메이저(major) 은행들에게 돈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음이("owned by banks") 알려져 있습니다(http://www.redstate.com/leon_h_wolf/2016/01/22/every-bank-wall-street-owns-donald-trump/).

△무슬림들의 지지를 유일하게 공화당 쪽에서 7%씩이나 받는다고 CAIR(미국 무슬림단체)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https://www.cair.com/press-center/press-releases/13365-cair-releases-results-of-muslim-voter-survey-ahead-of-primary-elections.html)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투표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세대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한 선택의 대가를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기에, 우리 자녀들이 살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도록 기도하며 투표를 준비해주세요.

sarahspring2009@gmail.com

고난의 신학: 욥기에 대한 묵상 (9)

이승현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고통 받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고난과 자기연민 짐 벗기고 하나님의 무한성 보도록

요즘 한국에서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대국에 대한 보도로 한참 들끓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무심하게 접한 뉴스를 점차 흥미를 갖고 지켜보게 되었다. 최첨단의 논리와 지능, 그리고 직감을 요구하는 바둑에서 인간이 만든 기계가 세계정상에 있는 바둑선수를 꺾는 것을 보고 나도 놀랐으며 인공지능이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탄과 함께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결코 인간들에게 도움만을 줄 수 없으며 인간의 진화보다도 훨씬 빨리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해 뒤떨어져서 결국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에 의해 도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상적인 현상을 싱귤래리티(singularity)라고 부른다.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것이며 인간이 더 이상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반대로 다른 이들은 인공지능이 결코 인간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능(intelligence)과 지각(sentience)과는 분명히 다르며 인공지능이 자의식(consciousness)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와 추측이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과학자들뿐만이 아닌 신앙인들과 신학자들도 고민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손으로 한 일(work of hands)은 인간의 노동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창 5:9; 신 2:7; 14:29) 많은 경우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신4:28; 27:15; 31:29). 노동과 우상 모두 인간의 노력과 창조의 결과이지만 이 두 가지를 보는 성경의 눈은 판이하다.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가운데 이루어지면 축복의 매개체이지만 우상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로 인간의 헛되고 악한 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노동의 부산물이며 힘을 덜어주기 위한 도움이의 역할을 하기위해 발전돼왔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인간에게 더 자유로운 시간을 주어 여가생활을 줄길 수 있게 하였다. 휴식이 필요한 우리에게 휴식을 준 것이다. 또 적은 노동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해 주었다. 반대로 똑같은 인간의 작업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상은 단순한 도움이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우상은 우리의 창작품이지만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로 신성시되며 숭배의 대상으로 군림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됨에 만족치 않고 계속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는 욕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칼빈은 인간이 우상을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였다. 나는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스리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다스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려는 욕망이 단순히 실현화되는 것이라고 본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창1:26)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리를 내주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욥기 38장에 소개되는 하나님과 욥과의 대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피조물과의 씨름을 자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시다. 호렙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작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왕상19:12). 그러나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요구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회용돌이 속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방대하신 지혜를 숨기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신다. 그리고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매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신다.

다시 말해서 고통 받는 욥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구원자 또는 대속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다. 욥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시기보다는 욥이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겨룰 수 없는 피조물임을 상기시키신다. 고난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로 욥과 친구들이 그들의 인간적 지혜로 경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궁에 대답하시기를 거부하시고 창조주로서 인간을 심문하신다. 거대한 자연의 힘과 질서 안에서 인간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이다.

창조의 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무심하시고 인정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현대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자연과 우주의 모습이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요소가 결여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시편 8편의 저자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탄한다(시8:4).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을 두셔서 밤이 낮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이 인간을 생각하고 아끼시는 마음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안정을 준다. 나는 40살 되던 해에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가보게 되었다. 평소에 큰 관심이 없었던 그곳을 꼭 가봐야 된다는 "부르심"을 느끼게 된 것이다. 암 진단을 받은 지 4년만의 일이었다.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파킹장을 걸어갈 때만 해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랜드 캐년은 보이지가 않았다. 좁은 길을 걸어 나무들을 지나서 내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는 장관이었다. 그 방대함은 말할 수 없었다. 캐년 가장 밑에 놓인 암반층은 지구의 태초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시간의 장대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랜드 캐년으로 부르셨나를 알게 되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방대한 우주와 장대한 시간 안에서 너무도 작은 존재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과 고난조차도 잠깐의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것 같은 고통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안에서 다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느끼게 되었다. 죽음이란 결국 태초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도 훨씬 남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자연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창조의 위엄을 통한 위로를 욥도 맛보지 않았나 나는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큰 짐과 압박이지만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 자체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과제이다. 욥에게 고난의 본질은 고통자체만큼이나 버거운 부담이었고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으로부터 고난과 자기연민의 짐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무한성을 엿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무한함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하신다. 욥의 치유는 욥기 어느 곳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나는 믿는다. 그의 치유는 그가 던져진 하나님의 거룩한 혼돈의 회오리에서 시작되었다고….

james.lee@itsla.edu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27)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기름이 떨어졌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된다. 해가 떨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밝히고 결혼식장으로 향한다. 이런 장면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에 잘 나온다. 등잔에는 기름을 담는 통이 같이 붙어 있다. 그러나 횃불은 그렇지 않다. 기름 담는 통이 따로 있어야 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마25:4).

지혜 있는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횃불을 밝히려면 홰에 기름을 묻혀야 하는데, 바로 그 기름을 담는 통에 기름을 준비해갔다는 뜻이다. 영어 NLB 성경에서는 여분의 기름(extra oil)을 준비해갔다고 번역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다.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으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예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마25:3).

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다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홰는 가져가고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아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예 기름을 준비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홰에 불을 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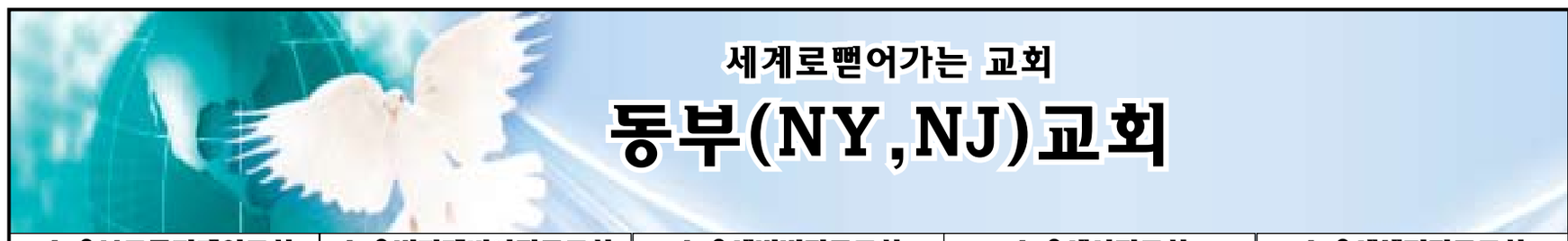
우리가 기름이 도중에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8절 때문이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꺼져간다"는 표현 때문에 준비해간 기름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이들은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 집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준비해간 홰에 불을 밝히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신랑이 밤늦게까지 오지 않아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열 처녀들이 그들의 등에 불을 밝힌 것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불을 켜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불을 켜놓고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 간 것이 아니라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말한 대로 이 등불은 횃불을 말한다. 홰에 기름을 묻혀야 불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가지 않았다. 홰에 묻힐 기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홰(헝겊)에는 약간의 기름이 묻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불을 붙이니 금방 꺼지고 말았던 것이다. 횃불에 계속 기름을 묻혀야 횃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데, 그럴 기름이 없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각자 횃불을 준비해오라고 했을 것이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홰와 기름통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횃불을 준비해오라고 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홰만 가져가고 기름통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다. '설마 밤에 오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에 홰만 들고 갔을 것이다. '혹시 밤에 오면 기름을 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성경훈련: 화,토 오전10:00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패니쉬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리더십 코멘터리 (13)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일등 리더, 미국 대통령의 성품

리더십(leadership)이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character)을 말한다.

정직은 황금보다 빛나는 리더의 성품

미국 대선 가도가 연일 뜨겁다. 민주, 공화 양당의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는 압승함으로써 승부를 조기에 가리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지만, 추격전을 벌이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반드시 승리해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리더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4개 대륙(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호주)의 2만 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정직, 능력, 비전, 용기, 상상력, 결단, 포용력 등 20여 가지의 특징 중에서 88%의 사람들(2만 명 중 17,600명)이 '정직성'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은 '정직한 리더'를 가장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도덕한 리더

리처드 닉슨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큰 지지를 얻었었고, 그 결과 재선에서 60%라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로 압승을 거두었다. 청중을 사로잡는 그의 리더십은 진정 탁월한 것이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불법 침입과 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는 2년 간 그 사실을 은폐했으며, 베트남 전에서의 패배와 캄보디아 침공 사실을 숨겨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측근들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닉슨은 미 하원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 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닉슨은 지금까지도 부도덕한 지도자 중의 한 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6년 미국의 역사학자 36명이 역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순위 조사했을 때 리처드 닉슨이 꼴찌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전에 그가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들이 도덕성을 상실하여 리더로서 신뢰를 잃게 되자 아무런 소용도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리더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

리더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거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여야 하며, 일이 잘못되었을 때 끝까지 자신의 임무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여야 한다. 링컨은 세상을 떠난 후에 미국 국민에게서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것은 그의 업적만큼이나 성품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편지가 최근에 공개되어 다시 한번 그의 탁월한 인품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링컨이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게티즈버그 전투 때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함께 보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에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책임은 자신이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올바른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성품(character)의 힘

초경량 제트기(very light jet)들은 작지만 상당히 빠르다. 이 제트기의 장점을 한 가지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탑승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척이나 유쾌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것은 제트기가 절약해 준 시간이다. 여행이 잦아 비행기 탈 일이 많은 비즈니스맨에겐 공항까지 차를 타고 가는 일을 비롯해 렌트카 업소, 공항 셔틀버스 정류장, 북적대는 터미널, 그리고 도무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시간 지연(delay)에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다. 하지만 제트기를 이용하면 이러한 여행 시간을 쉽사리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놀라운 비행기의 아버지는 바로 빌 리어(Bill Lear)라는 사람이다. 발명가이자 항공기 조종사이며 기업의 총수인 그는 150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다. 선구자적 사고를 하던 그는 1950년대에 이미 업무용 소형 제트기 제조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었다.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다. 마침내 1963년 첫 시험 비행을 한 뒤 이듬해 첫 완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순식간에 많은 비행기들이 팔렸고 그는 빠른 속도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만든 비행기 중 2대가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큰 충격과 함께 좌절감에 빠졌다. 그때까지 모두 55대의 비행기가 개인에게 팔린 상태였다. 그는 즉각 전 고객에게 "추락한 2대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전까지 비행하지 말라"고 전했다. 추락한 비행기를 조사한 결과 한 가지 사고 요인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단이 맞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공중에서 직접 추락 상황을 재연해보는 것이었다. 위험한 과정이었지만 그는 모험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비행기 이륙 후 동체가 중심을 잃는 상태에 빠지면서 빌 리어는 앞서 추락한 두 조종사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뻔했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시험을 마친 그는 결국 결함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새 부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 뒤 55대의 비행기에 그것을 장착시켜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55대의 비행기들을 비행장에 묶어 놓게 한 일은 리어에게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이 일은 잠재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 놓았다. 그 여파로 그가 다시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의문의 추락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과 부, 심지어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는 자신의 정직과 성실함을 굳게 지키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품(character)의 힘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인격자

크리스천 리더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인격자라는 점이다. 하워드 헨드릭스는 "오늘날 이 세계의 가장 큰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이다.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격의 위기이다"라고 말했다. 리더십의 열쇠는 리더의 성품이다. 훌륭한 인격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필수조건이다. 성경은 크리스천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품뿐만 아니라 리더의 성품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디모데전서 3장 2-4절과 디도서 1장 6-7절은 리더의 덕망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 뒤에 설명하는 모든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는 집약적 표현이다. 따라서 바울은 초대교회 리더뿐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크리스천 리더는 하나님의 성품 닮은 성숙한 인격자라야
정직에서 오는 신뢰감, 임무에 대한 책임감은 리더의 필수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부모가 화날 때 어떻게 할까요?

자녀의 행동이 부모를 화나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의 인격이나 성격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화가 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여과없이 쏟아 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른처럼'표현한다면 아이도, 어른도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처럼 화를 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지만 평화로울 때 준비하여 서로 도움이 되는 감정표현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필수겠지요.

먼저 부모가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화를 마구 폭발하면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는 엉망이 됩니다. 부모가 자주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화를 폭발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커져서 열등감, 좌절감을 갖게 되고 무기력하여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첫째, 무의식적으로 화내지 말고 어른처럼 화내는 연습하세요.

먼저 '절제!'하고 외치세요. 화가 폭발하려는 순간 자신의 내면을 흔들어 깨울 수 있을 정도로 '절제'하고 자신에게 외쳐 보세요. 화를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화내는 습관을 멈출 수도 있도록 흔들어 깨우세요. 그 다음에는 긴 호흡을 3번 뿜어내 보세요. 복식호흡을 천천히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까지 세어보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열까지 세어보세요. 열을 세면서 천천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자녀의 행동이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인지 미숙하여 실수로 한 행동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시험하기 위해 반항한 것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비난하지 말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세요.

화를 낼 때에는 잘 살펴서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해야 한답니다. 자녀가 몰라서 한 일이면 잘 가르쳐 주는 기회로 삼으세요. 아직 어려서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면 격려해주고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다고 힘을 주세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반항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따끔하게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하는 방법도 자녀의 기질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잘 해야 한답니다. 아시지요? 잘못된 훈계는 자녀에게 평생 상처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먼저, 엄격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엄마는 네가 ~~게 하는 행동(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된단다(엄마의 감정,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길 바란다"(구체적인 요청)라고 말해 주세요.

셋째, 아이는 어른이 말하는 대로 자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아이가 한 행동만을 주목하여 부정하거나 빈정대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참 나쁜 아이야." "넌 거짓말쟁이구나"와 같은 표현으로 아이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면 안됩니다. 부모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많이 받은 자녀는 부모가 들려준 대로 자아를 인식하게 되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된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곧 자기가 어떤 아이이며 앞으로 무엇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데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이죠.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부모 중에는 자녀 때문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가진 상처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부모인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아픈 기억들이 내면이 숨어 있다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화를 폭발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나 봅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뉴욕과 뉴저지 사모들을 위한 쉼과 영성 수련회

4월 11-13일 라마나욧 기도원

교회서 일인다역 사모들 '쉼과 영성' 꼭 필요

자기성찰, 내 영혼 돌아보는 영혼관리 시간

뉴욕과 뉴저지 사모들을 위한 쉼과 영성 수련회가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라마나욧 기도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수련회 후 사모들의 앵콜로 이어지는 2회 수련회는 1회와 마찬가지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주강사 이상목 목사(필라 이어리교회 담임)와 강사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는 지난 주 본사 뉴욕사무실을 방문해 제 2회 목회자 사모 쉼과 영성에 대해 소개했다. 이상목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사모들이 하는 일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생을 많이 한다"며, "일인다역 하는 사모들에게 쉼과 영성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목사

목사는 앞에 나서는 사람이지만 사모는 뒤에서 목사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그러다보니 자신의 신앙을 챙기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 목사는 "공동예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과 일대일 단독면담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인 터치, 즉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강조하는 이상목 목사와 최근 지성소 예배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태웅 목사가 만난 이번 수련회가 더 기대된다.

이상목 목사는 한국 뿐 아니라 태국, 브라질 등에서도 목사능력기도회를 인도한다. 말씀을 전한 후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예배의 특징은 '회개'와 '성결'이다.

LA에서 오랫동안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이 목사는 자신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개발이 안됐다"고 표현했다. 장로교 목사로 관념적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나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된 셈이다.

13년전 필라델피아 이어리교회로 청빙 받아왔을 때, 교인은 6-7명이었다. 오직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만 예배를 드렸다. 매 예배는 두 시간 이상씩 진행됐다. 저녁예배는 철야기도회가 되기 일쑤였다. 정말 성령이 불처럼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의 현장을 보는 순간이었다.

"하나님은 그냥 내려오셨죠.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자기성찰의 시간이며 내 영혼을 돌아보는 영혼 관리의 시간이다. 주님의 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이상목 목사는 소개한다.

수련회는 이상목 목사 외에 특강강사로 유태웅 목사, 정애란 사관, 오기곤 선교사가 수고한다. 개회예배는 문덕연 목사가 설교하고 특강 후엔 사모들의 시간(대화, 간증)이 이어진다. 찬양은 정영은 선교사가 맡는다.

수련회 총 경비 6천 달러 중 3분지1은 이상목 목사가 담당하고 3분지1은 조에미니스트리가, 나머지 3분지1은 후원자들을 찾고 있다. 돕는 손길들도 많아 차량이 필요한 사모들은 미리 연락해주면 픽업이 가능하다고.

▲연락처: 송금희 전도사(646-361-6591), 민지영 간사(917-885-4880), 윤희자 선교사(347-805-4399).

다음은 1회 사모수련회 참가자들의 간증이다.

이은경 사모

가자마자 첫 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치유가 됨을 체험했다. 매번 강의에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하는지 하는 말씀들에 큰 도전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갈려고 애를 쓴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의해 밀려가 도달하는 귀한 영적 진리를 얻었다. 영적인 귀한 소성함을 받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야겠다는 힘을 얻었다.

김지영 사모

이번 쉼과 영성의 시간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관계'와 '성령님과의 동행'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깨우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바쁜 사역가운데,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며 회복하심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성령님과의 친밀' 한 관계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고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치 자석에 'S'극이 'N'극을 끌어당기듯, 저와 주님의 관계가 이렇듯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함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더문 사모

I loved their spiritual messages and I loved singing and loud prayer time, even though my voice was gone afterwards. I was lucky to have three lecturers who are spiritually awaken. All of the messages were incredibly great.

〈유원정 기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이론·실제모형 배워

주예수교회 제 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성료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에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제 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열렸다.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캐나다 토론토 및 시애틀, LA, 시카고, 어스틴, 뉴저지 등 미 전역에서 65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해 강의와 현장견학, 패널 토의 등을 통해 주예수교회의 선교사역을 통한 선교적 교회의 이론적 지식과 실제 모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주예수교회 제 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첫날 환영만찬 후 시작된 강의에서 신광섭 교수(센트럴 침례신학대학원)는 "선교적 교회 논의와 실천의 흐름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미주한인 이민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들이 교회 밖 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상의 신학(Theology of Everyday Life)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 째날 이어진 한국일 교수(장로회 신학대학원)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통합적 관점"과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강의를 통해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하고 그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운동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온 신학이 제공하는 통전적이며 일관성 있는 신학적 토대가 필요함"을 밝혔다.

한편 디아스포라사회선교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배현찬 담임목사는 "성서적 전통, 공동체 이해, 문화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한인 이민교회가 속한 지역의 독특한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공동체적인 일체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 째날 이어진 노승환 장로와 박태은 장로의 강의에서는 각각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선교적 교회의 삶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선교적 공동체의 구체적 구현 방법과 그 공동체를 구성한 개인의 삶의 모습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리치몬드 지역의 대표적인 노숙자 사역기관인 CARITAS 본부와 워싱턴DC에 소재한 세이비어교회를 방문해 지역 사회선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앙공동체 사역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캔자스에 소재한 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에서 "선교적 교회"를 전공하는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15명이 필수 이수과정으로 참여해 학문적 이론 학습 및 및 실제 목회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 4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미국장로교회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국내선교위원회와 협력해 내년도 고난주간 전 주에 열릴 계획이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글로벌선진학교(GVCS)가 북미주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국 방문 체험 캠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기독청소년 고국방문 체험학교 모집

7월 12-23일, 미주성시화운동본부/글로벌선진학교 주최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글로벌선진학교(GVCS)가 북미주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국 방문 체험 캠프를 준비하며 지난 18일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GVCS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오는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박 12일간 진행된다. 이번 체험캠프는 지난 8월 펜실베니아 주에 정규 중고등학교를 개교(교장 조성률)한 GVCS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다.

고국방문단은 명소탐방과 영성캠프, 친선캠프 등 3개 부분으로 추진된다. 명소탐방은 서울과 독립기념관, 민속촌, 안동하해마을, 문경세재를 투어하는 스케줄로 짜여 있다.

영성캠프는 글로벌선진학교 채플과 이중언어 최고의 영성강사 및 전문 영어찬양팀에 소속돼 청소년기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 친선캠프에서는 글로벌선진학교 또래 학생들과 한국어를 배우며 친구 만들기와 한국예절 배우기 등을 경험한다.

GVCS 남진석 이사장은 "한국의 지자체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국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한국의 부정적인 문화를 무분별하게 경함하게 된다"며 "기독교 학교인 GVCS와 미주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캠프는 고국에 대한 자긍심과 기독교 영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번 고국방문 체험학교의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총 경비는 항공료를 제외한 참가비 800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GVCS는 한국내 충북 음성군(2003년 개교)과 경북 문경시(2011년 개교)에 이어 지난 2014년 8월 펜실베이니아 주와 매릴랜드 주 접경지역에 위치한 챔버스버그에 펜실베니아 캠퍼스를 세웠다. 캠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gemgem.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참가 문의: (714)742-2674, (213)675-6493

〈박준호 기자〉

예성서부지방회 주최 2016 사모&여교역자 블레싱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 예성 2016 사모&여교역자 블레싱 행사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서부지방회(회장 강양규 목사)는 지난 20일 남가주 벧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2016 사모&여교역자 블레싱"을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제 1부 예배, 2부는 양홍규 목사와 함께 하는 율동찬양 페스티벌, 그리고 제3부는 만찬과 레크리에이션 및 선물증정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그 누구보다도 사역에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사역에 지쳐있는 목회자 사모와 여교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갖게 됐다. 또한 지방회뿐 아니라, 각 개교회의 협조와 남가주 벧엘교회의 전폭적인 찬조로 인해 참석한 모든 목회자 사모 및 여교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선물이 한아름 돌아갔다.

이날 예배는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교회) 인도로 조성우 목사의 기도, 사모블레싱 감동영상, 강양규 목사(서부지방회장, 남가주 새언약교회)의 인사말, 헤세드 글로벌 예술선교회(단장 김헤세드 목사)의 특별찬양과 오병익 목사의 설교,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서부지방회〉

인공지능 획기적 발달, "바벨탑 쌓기"?

〈3면에서 계속〉

이 책에 따르면,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연구팀은 2007년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의 위독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결정할 때, 친지의 의견을 듣는 것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편이 나은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상당수 병원이 수십만 건의 환자 질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공지능이 바람직한 치료방법을 제안해주는 '의사결정지원도구(Decision Support Tool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3월 한 기술 콘퍼런스에서 "앞으로는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이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이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흉내 내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지금까지 인간이 수행해온 많은 역할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에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말한다.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 질병 진단이나 법률적 판단, 심지어 운전이나 바둑 등의 활동도 독점적으로 향유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영역에서 기계는 인간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다.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WEF는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여파로 향후 5년 동안 선진 15개국에서만 약 5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어느 사회학자는 세상의 미래를 진단하면서, 사회주의의 실험이 실패한 현실에서, 이제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과학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과학의 능력이 지금의 수준보다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더 편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현상을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달이 성경에서처럼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적하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가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인 것이다. 우리를 위해 값없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고귀한 희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회복을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성실하고 겸손한 하루가 되길 기도한다.

보스톤장로교회 후임 장성철 목사 허락

KAPC 뉴잉글랜드노회, 전덕영 목사 원로목사 추대

보스톤장로교회 전덕영 목사 후임으로 장성철 목사(사진)가 결정됐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잉글랜드노회가 봄 정기노회를 통해 전덕영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와 장성철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을 허락했다.

보스톤장로교회는 1976년 최양선 목사가 개척했으며 전덕영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1986년부터 30년간 목회해왔다.

지난해 5월부터 보스톤장로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해온 후임 장성철 목사는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과학자로 한국에서 황우석 박사 문제로 당황하고 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초청받을 정도로 의학 분야에서 신뢰받는 과학자였으나 하나님께 붙들려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영생교회 교육목사로 사역하다 보스톤에서 호프 채플을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 보스톤장로교회로 청빙 받았다.

전덕영 목사는 후임 장성철 목사에 대해 "학교 강단에 계속 설 수도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사명감이 있어 목회의 길을 선택한 분"이라며 "인재 교인이 많은 보스톤이라는 지역 특성상 과학자이며 교수였던 장성철 목사의 복음제시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목사회 증경회장 및 원로목사 초청만찬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증경 회장과 교계 원로목사를 섬기기 위한 초청만찬을 갖는다. 일시는 3월 31일(목) 오전 11시 금강산.

▲문의: (718)637-1470 총무 허윤준 목사

이영훈 목사 조찬간담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조찬간담회가 뉴욕교협 주관으로 3월 28일(월) 오전 8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사전 연락을 해야 하다.

▲문의: (718)279-1414, (917)620-8964 총무

지성소 예배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가 인도하는 '지성소 예배'가 오는 4월 10일(주) 오전 11시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963-9356

윤동주의 시를 노래하는 "눈오는 지도" 공연

윤동주의 시를 노래하는 "눈오는 지도"(snowingmap) 밴드가 25일과 29일 공연을 갖는다. △25일(금) 저녁 8시30분 뉴저지 하나임교회, 보컬 이지연, 해금 정재니, 건반 오혜미, 기타 한은준, 베이스 송태승, 드럼 유재훈 △29일(화) 저녁 7시30분 팰리세이드팍 도서관, 보컬 박수진, 건반 김성희, 기타 한은준, 베이스 노성종, 드럼 차승현. 입장료는 없다. www.snowingmap.com

▲문의: (201)835-8692

어린양 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박윤선 목사가 선서하고 있다.

"남은 인생 주의 흔적 남기며 앞만 보고 가겠다"

뉴욕어린양교회 박윤선 목사 취임감사예배

뉴욕어린양교회 박윤선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20일 저녁 5시 동 교회당에서 열렸다. 예배는 어린양교회가 소속된 C&MA한인총회 동부지역회 주관으로 열렸다.

박윤석 목사는 "죽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어린양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남은 인생 주의 흔적 남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김수태 목사님의 뉴욕 사역을 들을 때마다 그 뒤를 따를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다. 복음을 남기고 가신 김수태 목사님과 어린양교회 교우들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민병욱 C&MA 동부지역회 회장 인도로 기도 최재원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김태욱 목사, 특별찬양 어린양교회 찬양팀, 설교 백한영 목사(C&MA한인총회 감독), 헌금기도 김바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백한영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막1:9-15)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교회는 쉼 없는 유혹의 시험현장이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광야 같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로 충만함으로 기도와 경건훈련을 하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부흥을 이루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 취임식은 백한영 감독 집례로 취임목사 소개, 서약, 합심기도, 공포, 취임패 증정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축하는 김신옥 목사(대성학원 이사장),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Daniel R. Wetzel(VP for Church Ministries), JAMA 김춘근 장로의 축사동영상 이 있은 후 축사 김홍석 뉴욕교협부회장, 김영환 뉴욕목사회장, 송종호 은혜한인교회 수석부목사,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권면 마초훈 한인총회실행위원, 안창의 뉴욕교협증경회장, 축가 어린양교회EM, 취임목사 인사, 취임감사패 변영호 장로, 상징물 증정 및 광고 김정우 장로, 축도 이병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윤선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BA), 건신대학원(M. Div), 풀러신학교(D.Min candi)를 수학하고 2000년부터 14년간 남가주 은혜한인교회에서 사역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 새 회장에 박태규 목사

뉴욕전도협의회가 지난 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 12대 회장에 박태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담임), 부회장에 박성원 목사(뉴욕풍성한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지난 17일 새힘장로교회에서 드린 박태규 회장 취임예배는 김진화 목사 인도로 기도 김택용 목사, 성경봉독 유태웅 목사, 설교 김상태 목사("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21:15-25), 축사 전희수 목사, 김형택 목사, 인사 박태규 회장, 축도 김용걸 신부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전도협의회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태규 목사 △부회장 박성원 목사 △총무 박시훈 목사 △회계 김희숙 목사 △부회계 박데보라 목사.

〈기사제공: 뉴욕전도협의회〉

뉴욕전도협의회 회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27일 오전6시 23개 지역서 일제히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2차 준비모임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의 연례행사인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2차 준비모임이 지난 17일 뉴욕예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열렸다.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교협이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들이 관심이 없다"며,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다음회기로 넘어간다. 교회가 연약할수록 소망을 품어야겠다. 이번 연합예배가 잘 진행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기름부음이 넘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는 한준희 목사 인도로 기도 임용수 목사, 말씀 김홍석 목사, 합심기도 인도 박태규 목사, 축도 김상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회장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 담임)는 이사야 6장 1-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보내소서' 답하며 소명받은 자의 헌신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웃시아 왕이 죽었을 때(위기) 이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겸손), 발(수치)을 가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안에서) 이사야 자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는 망할 자라고 고백한다"며,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인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주님이 받으시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2016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총 23개 지역으로(도표 참조) 나눠 각 지역마다 준비위원장을 세우고 27일(주) 오전 6시 각 지역에서 일제히 예배를 드리게 된다. 교협은 예배 순서지와 헌금봉투, 배너(요청지역에 한해)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 준비위원회 모임은 22일 교협사무실에서 열렸으며 평가회는 28일(월) 오전 10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일시	장소	준비위원장	설교자
1 코로나	뉴욕동양제일교회	조원태	양희철
2 우드사이드	어린양교회	이재봉	
3 서니사이드	서광교회	손한권	최고센
4 엘름허스트	퀸즈한인교회	김상태/김희복	이규섭
5 플러싱1	뉴욕충신교회	이수영	
6 플러싱2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준성	이만호
7 플러싱3	뉴욕효신장로교회	박맹준	문석호
8 플러싱4	빛과소금교회	박현숙	정순원
9 플러싱5	뉴욕행복한교회	박태규	
10 플러싱6	뉴욕선민교회	전희수	권캐더린
11 플러싱7	프라미스교회	김명옥	김남수
12 플러싱8	대한교회	한준희	김경렬
13 프래시메도우	에벤에셀선교교회	김홍석	현영갑
14 베이사이드1	하크네시아교회	이병홍/이종명	이병홍
15 베이사이드2	뉴욕초대교회	임재홍	김진화
16 리틀넥	뉴욕센트럴교회	장현숙	김재열
17 라클랜드/웨체스터/브롱스	웨체스터연합교회	유승례	박효성
18 SI	뉴욕성결교회	홍명철	
19 맨해튼	뉴욕정원교회	주효식	
20 브루클린	한인연합교회	이윤석	최병렬
21 LI 1	뉴욕예일장로교회	김종훈	김석형
22 LI 2	뉴욕로즐린한인교회	최현준	박마이클
23 LI 3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장재웅	임영건

뉴욕전도협의회 회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37회 목요기도회

목양장로사역 뉴욕 컨퍼런스 2차 준비기도회 겸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는 지난 17일 오전 8시 제 37회 목요기도회 및 제 29차 목양장로사역 뉴욕 컨퍼런스 2차 준비기도회를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었다.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계훈 장로 인도로 주윤덕 장로의 대표기도 후 이규섭 목사가 "선택된 당나귀"(마21: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특별 기도는 △목양장로세미나를 위하여/김명신 장로 △사순절을 위하여/임수웅 장로 △연합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배상규 장로 제목으로 통성기도를 했으며 헌금기도는 박용기 장로, 특별찬양 우화선 장로, 광고 황규복 장로, 축도 이규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뉴욕장로연합회는 5월 3일과 4일, 프라미스교회에서 "목양장로사역 뉴욕 컨프런스"(준비위원장 황규복 장로)를 개최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2차 준비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회일보 창간 7주년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이 15일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주의 뜻 실천하는 기독언론 되겠다"

교회일보 창간7주년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가 창간 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을 열었다.

지난 15일 저녁 6시30분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우병만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성경 같은 활자를 만들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7년 동안 노력해왔다"며, "특히 한인 이민 사회와 교회가 공존하는 뉴욕에서 소통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주의 뜻을 실천하는 기독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1부 감사예배는 김연규 목사 인도로 기도 장경혜 목사, 특별찬양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설교 송일현 목사, 봉허송 뉴욕클래시컬심포니 오케스트라, 봉헌기도 현종각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사장으로 송일현 목사(서울 보라성교회 담임)를 추대했으며 3부에서는 고문으로 김용걸 신부, 박연환 회장, 방지각 목사, 신현택 목사, 안창의 목사, 황경일 목사를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했다.

또 부대표에 위화조, 상임이사 배영란, 협력단체 뉴욕클래시컬심포니 오케스트라(대표대행 김은희) 등을 세웠다.

이날 축사는 뉴욕한인원로목사회장 홍상설 목사, 뉴욕한인목사회 회장 김영환 목사, 뉴욕교협 부회장 김홍석 목사, 뉴욕총영사관 권기환 부총영사, 임진홍 홍보관,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 퀸즈한인회 류제봉 회장, 맨하탄한인회 제프리 회장,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의 축하찬양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오바마, 연방대법관에 메릭 갈랜드 지명!

〈1면에서 계속〉

당시 아이오와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끝까지 갈랜드 판사의 임명에 반대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도 그래즐리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갈랜드 판사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번 대통령이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주자들은 오바마가 지명한 인물은 누가 됐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겠다고 맹세까지 했다.

뛰어난 법관 경력을 이어온 것으로 묘사되곤 하는 갈랜드 판사는 63살이다. 갈랜드 판사보다 두 살 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벌써 대법관직을 수행한 지 10년이 넘은 걸 고려하면 갈랜드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임명되기에는 다소 나이가 든 편에 속한다.

대개 대법관에 임명되는 후보는 50대 초반인 경우가 많다. 대법관이 종신직임을 고려하면 50대 초반에 임명된 대법관은 대개 30년 가까이 일을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도 공화당에 한발 양보함으로써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이 반대할 만한 지나치게 진보적인 인사를 고르지도 않았고, 나이도 많은 편이라 '오바마가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에 존재할 시간도 공화당이 우려하는 것보다 짧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공화당이 반대할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

갈랜드 판사의 경력에서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테러 사건은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법무부를 대표해 사건 수사와 테러범들에 대한 기소를 지휘했다. 당시 갈랜드는 모두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사를 독려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상,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발생한 공석을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관 사이의 이념 성향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임명이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매우 크다. 현재 여덟 명의 대법관은 이민자, 인권, 낙태, 인종, 투표권리법안, 사형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서 대부분 예외 없이 4:4로 팽팽하게 갈려 있다.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의 결정이 그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갈랜드 판사가 임명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세 번째 대법관이 되는데, 아홉 명 중 세 명이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면 건강보험 개혁법안, 이민법 개정안, 기후변화 관련 규제 등 공화당이 틈만 나면 폐기하려 드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를 안정적으로 쌓았다고 할 수도 있다. 한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보통 몇 년이 걸리기 마련인데, 대법관의 이념 지형이 진보 우위라면 그만큼 현재 개혁법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는 미국 정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 특히 대법원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치열한 공방 끝에 내려진 결정은 대개 보수적인 결정이었다. 존 로버츠가 대법원장이 된 뒤 대법원은 총기와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들어서는 문턱을 높였으며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많았고, 지난해 동성결혼은 합법화시켰지만, 인종에 따른 대학교 입학, 즉 소수 인종 배려 전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기도 했다.

결국 보수적인 정치세력에는 그래서 이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실 2009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부터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일관된 목표는 오바마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저지하는 일이었다. 대법원의 지형을 새로 짜는 일은 오바마가 만들어낼 변화 중에도 가장 심대한 일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이를 막으려는 쪽도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주제

제 3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

제 3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가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주제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총장 김광신 박사)가 주최하고 미스바워십, 베데스다대학교,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기도회는 △회개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 남가주를 위한 기도 △세워질 리더들과 가정을 위한 기도 △헌신을 위한 기도 등 5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회를 진행했다.

미스바워십 찬양팀, 골든게이트&베데스다 연합찬양팀, 미주장신&미스바워십 연합 찬양팀이 찬양 인도했으며 강순영 목사(자마)가 선포기도를, 김현완 학장(GMU)와 김익현 목사, 그리고 김신호 교수(베데스다대)가 설교했으며 박형준 목사(UMPC)가 그룹기도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한미연합회가 주최한 제33회 연례기금모금행사 성황리에 열렸다

한미연합회 제33회 연례기금모금행사 성황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서리 스티브강)의 기금모금 만찬이 19일 오후 6시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은 KAC행사에는 AP 미적분 시험에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만점 학생을 배출해 화제를 모은 앤소니염 교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왔다. 이외 데이비드 류 LA시의원을 비롯해 KAC 이사 및 한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PCA한인서남노회가 인랜드교회에서 열렸다.이날 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안수사실을 확인했으며 오목사의 안수과정상 문제를 총회 법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오정현 목사 안수사실 확인

PCA한인서남노회, 과정상 문제는 총회법사위서 다루기로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담임)에 대한 목사안수 의혹과 공방 속에서 PCA 한인서남노회는 "1986년 10월 14일 강도사 오정현에게 목사안수를 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인랜드한인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지난 15일 오전 9시에 열린 제 66회 PCA 한인서남노회(노회장 고건주 목사) 정기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안수건'과 관련한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오 목사의 목사안수는 지난 1986년 열린 제7회 노회 회의록에 명시돼 있는 대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목사안수를 하기까지의 과정상에 드러난 교단헌법(BCO)에 저촉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노회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교단 법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성윤 목사(나성남포교회)는 "오정현 목사 안수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 총회 법사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서남노회는 '총회 차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안수문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이번 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안수 적법성에 대해 상정된 안건이 노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류미비로 기각한다고 보고하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노회원들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안수 절차를 검토해보자는 주장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오 목사 자격이 논란이 된 것은 목회자가 되기 전 거쳐야 했던 강도사 과정에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PCA 서남노회는 오 목사가 CRC(북미개혁교단)에서 거쳤다는 강도사 활동을 인정, 목사안수를 인허했다. 하지만 CRC에는 '강도사' 규정이 없다. 오 목사에게 있던 '설교권'은 목사가 공석일 때 교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CRC 헌법43조)으로, 이는 목사 안수에 필요한 강도사 규정이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강도사 사칭'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PCA가 오 목사를 어떻게 '강도사'로 인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안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상황이 됐다. 결국 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안수부분에 대해서 총회법사위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로서 PCA 법사위원회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안수 건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제3차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세미나

4월 10일 나성소망교회에서

제3차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세미나가 실시된다.

오는 4월 10일(주) 오후 5시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사 4561 W. Pico Blvd.)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LA지역의 찬양대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강사는 UCLA 작곡과와 UCLA지휘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남가주교회음악협회 부회장인 전현미 선생(사진·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지휘자). 이미 2차례 열린세미나를 개최해온 전현미 선생은 "지난 세미나 때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찬양대원으로써 꼭 필요한 것들로 진행하여 고맙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하며 LA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요청으로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찬양대원의 영적자세 △효과적인 찬양연습 △복식호흡을 다루게 된다.

전현미 선생은 "찬양대원을 위한 열린세미나를 준비하며 많이 침체되어 있는 현대교회의 예배가 이 열린세미나에 참석한 대원들의 작은 불씨를 통해 각 교회의 찬양대에 불씨를 붙여 활활 타오르는 큰 성령의 역사로 섬기시는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했다"며, "찬양대원외에 성도들도 참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문의: (323)937-0961, (310)381-9835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다민족연합기도회 'Azusa Now'

The Call과 미국주류 선교단체가 연합으로 주최하는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아주사 지금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9일(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LA 매모리얼콜리세움(3911 S. Figueroa St)에서 개최된다. 주강사는 루잉글 목사. 한인인도 기도시간은 오전 7시-9시.

▲문의: (213)384-5232/(213)598-5323, laholycity@yahoo.com

뮤지컬 더 홀리스피릿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주최하고 창조문화선교단(국장 이동양 장로)가 주관하는 뮤지컬 '더 홀리 스피릿'이 오는 4월 8일(금) 저녁 7시30분, 9일(토) 저녁 7시, 10일(주) 저녁 6시 30분에 상연된다. 티켓은 5달러이며 예매처는 LA기독교서적센터, 풀러턴 은혜서점, 세리토스 복음사, 얼바인 교육전문서점이다.

▲문의: (714)446-6200

2016 WTCon 선교집회

WAVE 라스베가스 청년연합 2016 WTCon 선교집회가 오는 4월 1일(금) 오후 7시 필그림교회(3840 El Camino Rd, Las Vegas)에서 개최된다. 이번 선교집회는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이 함께한다.

▲문의: wavelasvegas@gmail.com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세리토스 선교교회'로 개칭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가 1, 2, 3 세대가 함께 지역사회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 명칭을 '세리토스선교교회'로 바꾸고 3월 27일(주) 오전 8시, 11시 2016년 부활 축제를 개최한다.

▲문의: (562)402-2919

디모데성경연구원 세미나

디모데성경연구원(이재학 목사)이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교육 세미나는 4월 4-6일(등록비 200달러), 요셉의 삶을 연구하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삶'을 4월 7일(등록비 60불)에 각각 진행한다. www.worldteach.co.kr

▲문의: tbm@worldteach.co.kr

장애인을 위한 APIDC Statewide 컨퍼런스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with Disabilities of California(APIDC 대표 패트리시아 키나가)가 주최한 APIDC Statewide 컨퍼런스가 18일과 19일 양일간 파사데나에 위치한 웨스틴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했다.

2일간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컨퍼런스의 첫날 패트리시아 키나가 APIDC 대표, 진 마수다 파사데나 부시장, 에리카 존스 Pacific ADA Center 디렉터, 피터 왕 박사(칼 스테이트 노스리지), 제니퍼 쿠미야마(Disability Rights Advocate and 2010 Ms. Wheelchair California)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열린 주제별 강연은 △'Outreach to the APIDC' △'Benefits' △Prevention, Protection and Civil Rights in California' △'Mental Health and Emerging Issues in the API Communities' △Assistive Technology: Update on Current Technologies △Employment for Individuals with Disavilities 등 실질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내용들의 주제로 다뤄졌다.

강사로는 엔젤라 리우 카운슬러, 베넷 김 스페셜리스트, 조나단 샘슨 소셜시큐리티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인들의 참석이 저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발런티어로 참석한 김민지 ARS 스페셜리스트는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권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제공됐다. 그러나 한인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음 컨퍼런스 때는 통역서비스를 보강해 한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APIDC Statewide 컨퍼런스가 연인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213)380-0071, Cell.(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l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부활절 연합예배 27일 전국서 일제히

'내 양을 먹이라' 주제...포항, 대구, 서울 등

'2016 부활절연합예배'가 27일 경북 포항과 대구,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교인들은 부활절연합예배에서 교회일치와 연합, 북핵 폐기와 한반도 통일, 지구촌복음화와 인류평화, 대통령과 위정자, 4·13 총선 등을 위해 기도한다.

또 부활절연합예배 헌금과 후원금은 각막질환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개안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시켜 주고 군부대 교회 건축비, 교회 성물 구입비, 보훈가족 생계비 등으로 지원한다.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김대원)는 이날 오후 2시 포항중앙교회 본당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제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김대원 목사 인도로 기도, 찬양, 설교, 축도 순으로 이어진다.

말씀은 이용규 목사(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전하고 색소폰 김승과 CCM 가수 조수아가 특송한다.

김승은 독일 Kassel 국립 오케스트라단원과 태국왕실 초청 바순&색소폰 강사를 지냈으며 코헨뮤직 대표, 극동방송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수아는 문화매거진 CCM LOOK과 올해의 신인 여자가수(2000년), 올해의 여자가수(2002년)에 선정됐으며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널 나눔대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활절연합예배 헌금과 후원금은 저소득층 개안수술비로 사용한다.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김대원 회장은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교단 교회간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안동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용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안동교회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김용수 목사 인도, 김용주 장로(부회장) 기도, 박영종 목사(서기) 성경봉독, 안동시장로합창단 찬양, 이한수 목사(총신대 교수) 설교, 박장덕 목사(부회장) 통성기도, 박중수 장로(회계) 봉헌기도, 이정우 목사(전 회장) 축도, 최재영 목사(총무) 광고 및 내빈소개 순으로 이어진다.

부활절연합예배 헌금 등은 지역 보훈가족들에게 사랑의 격려금으로 전달한다.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강재식)는 이날 오후 3시 구미상모교회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강재식 목사 인도, 한상봉 장로 기도, 구미제일교회 찬양팀 찬양, 구미상모교회 엘천 오카리나팀 특송, 박희종 목사(대구대봉교회) 설교, 특별기도, 축도 순으로 이어진다.

특별기도에서는 나라와 민족, 한반도와 세계평화, 한반도 통일, 구미시 발전, 구미 성시화 등을 위해 기도한다. 오프닝찬양은 구미 청소년연합회 찬양팀이 맡는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영태)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란 주제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말씀은 김서택 목사(대구동부교회)가 전한다. 부활절연합예배 헌금은 육군 제50사단 신병교육대 교회 신축에 따른 예배용 의자, 강대상 의자, 찬양용 악기, 피아노, 영상시스템, 커튼 등 성물 구입비로 지원한다.

서울지역(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내 양을 먹이라'(요21:17)는 주제로 이날 오후 3시 광림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예배는 교단별 안배에 따라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 인도, 안만길 목사(합신 총회장) 대표기도,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설교, 유영식 목사(기침 총회장)·송덕준 목사(예성 총회장)·임종원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특별기도 순으로 진행된다.

부활절연합예배 헌금은 통일한국 지원 및 사회적 약자 섬김,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헌금 등으로 사용한다.

"동성애 · 차별금지법 저지 마지막 골든타임"

기독지도자 발기인대회 개최

'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기독지도자 발기인대회'가 21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더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전용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승규(전 법무부장관) 장로가 마련한 이날 대회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이용규 전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과 양병희 전 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박무용 총회장, 부산 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목사,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 정인찬 총장,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태희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과 이슬람 확산 저지 및 수쿠크법 및 할랄단지 철회, 차별금지법 폐기 등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또 4·13총선에 즈음해 다음달 3일을 '1000만명 서명주일'로 지키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명운동에는 한기총과 한교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등도 참여키로 했다.

전 장로는 "동성애와 이슬람에 우호적인 법안,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면 처벌하는 법안들이 입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교회는 불법집단이 되고 성경은 불온문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회에는 국가를 살리고 법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총선은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한 이영훈 대표회장은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하나 돼 동성애와 이슬람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당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 공의 따른 정책 마련해 달라"

한교총네트워크, 총선 정당·후보자에 5대 분야 정책 제안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한교총네트워크)는 4·13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17일 발표했다. 이 제안서는 이날부터 주요 정당과 총선 입후보자들에게 전달된다. 한교총네트워크는 다음달 1일까지 답변을 받아 신문에 발표하고 TV간담회, 평가회의 등도 갖기로 했다.

한교총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정립, 통일, 문화·교육, 사회, 지역·기후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한국교회의 뜻을 담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정립'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체성 확립' '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 위에 굳게 서서 공정한 경쟁과 약자 배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학 등 각 분야 학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역사정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역사를 편찬하고 정통성 있는 역사연구와 대중서적 출판지원, 대중매체를 통한 역사 바로 알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 분야에선 '자유민주평화통일의 추구' '북한동포 지원센터 확대'를 제안했다. 오치용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비전70사업단장이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탈북민들이 민족의 동질성을 갖게 하고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북한동포지원센터를 보완·확대하자"고 요청했다.

'문화·교육' 분야에선 '근대문화지원'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지원' '사립학교법 개정' '선지원·후추첨 제도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명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전문위원은 "한국교회가 근대화와 독립운동, 대한민국 건국, 민주화, 산업화, 국제화에 미친 영향이 큰데도 이를 종합·정리하고 발굴, 연구 및 홍보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근대문화지원법 제정과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종립학교를 기피하게 한 뒤,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실시하자"고 말했다.

'사회' 분야에선 '동성애 조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테러예방을 위한 입국비자 강화' '이슬람 할랄식품 도입 반대' 등을 제시했다. 박종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인권위원장은 동성애와 관련,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동성애 조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동성애 조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탈동성애 역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기후환경' 분야에선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악법 반대'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교회에 연합과 일치가 약화되고 물질주의,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와 있는데 4·13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를 내 기쁘다"면서 "한국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으로 나라가 바로 서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도 "총선을 앞두고 정말 나라를 위한 참된 길이 무엇인가 제안하려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애국심에서 오늘 이 자리가 나왔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교총네트워크에는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기공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중순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3차례 회의를 통해 5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교회와신앙 '동성애 포럼'

"동성애-에이즈 연결 못짓게 하는 인권보도준칙 개정·폐지돼야"

교회와신앙(사장 엄무환 목사)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동향' 포럼을 개최하고 '혐오·인권·차별금지' 논리를 앞세워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동성애자들의 전략을 지적했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로 지칭하고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며 "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반동성애자들에 대해선 '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동성애자와 에이즈를 연결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고 언론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보도준칙이 오히려 사상 의견 등의 발표를 제한하는 사전검열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정보를 차단하는 국가인권위법과 인권보도준칙은 하루빨리 개정·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법무법인 산지) 미국변호사도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특정 종교, 이단을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면서 "전도 역시 차별금지로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 영국에선 201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로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순회전도단원이 거리에서 동성애 등 성적인 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식에 쓰일 케이크와 사진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각각 13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판결과 6637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면서 "외국 사례를 볼 때 차별금지법안은 기독교 신앙을 지닌 시민을 차별하는 '역차별 장려법'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 이슬람 저변확대 경계

교단개혁 측 임시총회 개최…서안식 총회장 등 불신임 확정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 기업가 김강산(36·파키스탄 이름 찌마 패설)씨가 지난 13일 4·13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위에서 출마 권유를 받았다"며 "다문화가정 자녀 2, 3세 교육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천 신청 배경을 밝혔다. 또 "교계에서 무슬림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출마하는 것이다. 기독인들도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창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종교를 인정한다"며 "교계에서 우려한다니 안타깝다.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경북 경산에서 중고기계, 플랜트, 버스 등을 중동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오션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산시 남부동청년회 수석부회장으로서 각 시·군 장학회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측에서, 같은 해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측에서 유세를 도왔다.

김씨는 선거운동 중에도 하루 다섯 번 이슬람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할 정도로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무슬림이다. 회식 때도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평소 이슬람 경전인 꾸란의 구절을 수시로 인용한다.

교계는 이슬람 세력의 저변 확대가 우려된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한경 국제신학연구원 목회연구소장은 "산업계, 교육계 등에서 저변 확대를 꾀하던 이슬람 세력이 이제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 법적·제도적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포교를 원활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글로벌시대에 다문화가족은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이 돼야 하고 한국의 법과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나 여성 인권 유린 같은 이슬람 문화는 한국사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무슬림들은 유학생, 비즈니스맨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 여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얻고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한다"고 우려했다.

김정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이슬람대책위원장은 "수년 전 사우디 정부는 캄보디아에 무슬림 국회의원을 뽑아 달라며 약 400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슬람 포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퀴어축제에 올해도 서울광장 내줄듯

동성애 단체들 사용 신청…1시간여 찬반격론 끝 통과

동성애 단체들이 추진한 '2016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청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위원장 허재완)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위원들이 1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며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아직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지만 위원들은 논란 중인 것들이 '조례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고 퀴어문화축제를 수리하는 쪽으로 우세하게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청기간(6월 8-12일) 중에 3개 동성애 단체가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 중복 조정회의를 거친다"며 "최종 수리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보통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총무과 선에서 결정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예민한 사항이라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다음주 초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은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돼 있듯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 때는 검은색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여성 동성애자가 방문객을 맞았다. 살색 속옷을 입고 검은색 망사를 걸친 이들이 광장을 활보했다. 상반신을 노출한 남녀의 사진이 전시됐고 남녀 성기 모양을 한 과자와 맥주, 보드카 등이 판매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직원인 김진 씨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때 동성애자들은 시민들과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 하나만 걸친 채 전신을 노출해 극도의 거부감, 불쾌감,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시켰다"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익적 행사에 해당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장 광장사용 신고를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에 수리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법원에 퀴어문화축제 행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광장 조례 제6조에는 '서울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동성애 확산이 우려된다며 퀴어문화축제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50여 교계 및 시민단체는 18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성명을 내고 "만약 서울시가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동성애축제를 열게 한다면 서울광장 조례규정 주민발의를 시작으로 모든 힘을 총동원해 관련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규탄대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 양극화 극복대안 마련 싱크탱크 필요"

기윤실 회원총회서 임성빈 교수 주장

"한국교회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이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영동교회에서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를 주제로 개최한 회원총회에서 임성빈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임 교수는 "부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교육·주거·이념·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회도 양극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이슈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 간의 견해도 극렬하게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한 예로 동성애 문제 등과 관련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다수는 복음주의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안 초안을 만든 이들 중 상당수도 복음주의자"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기독교가 피스메이커로서 정체성을 갖고 갈등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의 기독교는 공공영역에서 무력한 상황"이라며 지식·정책·문화 영역에서 기독교의 힘과 활력의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임 교수는 "기독교는 세상의 주류담론들과 섞이지 못했고 다음세대 육성에도 실패해 결국 명망가들만 남은 미국의 기독교와 같은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한국사회 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들을 개별적으로 두기 보다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극화의 핵을 칠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 공동의 담론을 형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7면에서 계속〉

그렇게 기름통을 가져가지 않고 등만 가져가서 보니 다른 네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기름통은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아, 나만 안 가져온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안심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고 날이 저물어 갔다. 그러면 그때라도 기름을 구해 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부랴부랴 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횃불을 밝히고 신부 집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잔치가 시작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 혼인잔치에 늦게 왔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랍비에게 유대인 혼인잔치에서는 시간 전에 가야만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답변이 왔다. 그러면서 학생이 지각하면 돌려보내는 일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절대 지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잔치 집에 늦게 왔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일은 없다고 했다.

여기서 잔치는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천국에서 베풀어질 잔치를 말한다.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이 닫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다.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다. 문은 열리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비유를 흔히 열 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런 제목보다는 "닫힌 문의 비유"가 더 좋지 않을까?

jinhlee1004@yahoo.com

선교의 창 (51)

현지 언어 습득을 위한 제언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를 위해 타문화권으로 건너간 사람은 아무리 현지 언어를 잘 한다 해도 원어민처럼 될 수는 없다. 그렇다할지라도 학습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현지인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혀가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배우는 자의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한인 선교사들은 언어습득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된 관심사는 사역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시적인 사역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선교지에 가자마자 말 한마디 못해도 통역을 써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생활언어 정도하면 더 이상 언어습득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기 언어수준으로 많은 프로젝트 형 사역을 펼친다. 따라서 한인 선교사들은 그 사역의 연륜과 내용에 비해 현지 언어 수준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선교는 그 나라 언어 수준만큼 문화 이해가 되고 사역도 심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난 곳 방언을 경시하고 일 중심의 선교 패턴은 한인 선교사회가 혁신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어떻게 하면 초기에 현지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을까?

장기사역을 위한 인식의 변화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함이렷다. 만일 빌딩의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상상할 필요도 없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현지에 도착하여 첫 텀(Term)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역의 미래가 결정된다.

OMF선교사 출신이자 강해설교의 대가인 데니스 레인(Denis J. V. Lane)은 "선교사에게 첫 2년은 평생 사역의 기초를 놓은 기간이며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이는 이식하는 나무와 같다. 만일 30년 된 사과나무를 뽑아 기후와 토양이 전혀 다른 지역에 심을 때 대두되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이는 '얼마나 빨리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이다. 나무가 살아나려면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독한 투쟁이다. 만일 제한된 자양분을 뿌리에 투여하지 않고 잎이나 열매 쪽으로 보낼 때 그 나무는 곧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는 자는 모든 정력을 현지 언어습득에 쏟아야 한다.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다.

타 문화권에서의 첫 번째 선교적 과업

서구 선교사 사회에서는 보통 한 텀을 4년으로 친다. 이 때의 주된 사역은 현지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현지 방언을 제대로 습득하기 어렵다. 살아가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이다. 누구에게나 첫 텀은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된 순간이다. 현지에 아는 이도 없고, 오고 갈 데도 없다. 할 일도 없다. 길도 모르다. 언어 소통이 안되므로 답답하다. 이러한 환경은 언어학습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한 1년쯤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기저기 다닐 길도 알게 되고 친구도 생긴다. 현지 말도 조금 함으로 긴장도 많이 풀린다. 그러면 자연히 제한된 에너지가 분산된다. 결국 나중에는 생활언어 수준에서 머물면서 활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언어적 기초를 약하게 하고 조급하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다.

그래서 OMF나 WEC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신참 선교사에게 첫 텀 동안은 일을 못하게 한다. 오로지 첫 2년은 언어학습에 전념하게 한다. 그들에게 나머지 2년도 자유함이 없다. 그 절반의 시간을 언어학습에 매진하며 부분적으로 협력사역을 하게 한다. 또한 기관의 Language Supervisor는 시어머니처럼 인턴 선교사의 언어습득 과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안내한다. 이렇게 하여 한 텀이 끝날 때는 최종 언어학습 평가를 받는다. 만일 기대수준에 못 미칠 경우 그는 선교기관을 떠나야 한다. 인턴 선교사를 향한 이러한 관리제도는 우리 한인선교단체들이 겸허히 배워야 한다. 이것은 100년 이상 된 서구선교단체의 노하우에서 나온 값진 교훈이기 때문이다.

브루스터(Brewster) 부부의 언어학습 기술개발 이론

현지 언어를 잘 배울 수 방안은 무엇인가? 가능한 정규 언어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좋다. 혼자 한다거나 개인적인 레슨은 효과가 적다. 언어 학습자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듯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간과 물질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학문적인 이론과 생활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병행할 때가 좋다. 언어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언어가 되기 쉽다.

선교사 언어훈련 전문가인 토마스, 엘리자벳 브루스터(E. Thomas Brewster, S. Brewster)부부는 "언어학습기술개발을 위해 첫째, 그 지역 현지인과 함께 살며 지역 대중교통만 이용하라. 둘째,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개인 소지품을 20kg으로 제한하라. 셋째, 방법론적인 면에서 생활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라. 넷째, 현지에서 몸으로 부딪치면서 배우라"라고 조언한다.

요약하면 어린아이처럼 생활 속에서 듣고 말하기를 반복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선 문법 또한 따로 공부해야 한다. 문법적인 이해는 언어생활에 완성도를 더하고 보다 정확한 의미와 감정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모범적인 TLI(Taipei Language Institute)언어 학습법

TLI는 대만에 있던 외국어 교습 학원이다. 여기서는 주로 선교사들에게 중국어를 학습시키는 곳이다. 학원 원칙은 선생과 학생의 1대1 맞춤형 교육방식이다. 1대1학습법의 장점은 학생이 딴 생각을 하기 어렵다. 이 때 선생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기보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언어실습 대상으로서 역할을 한다. 선생은 대화를 유도하며 잘못된 부분의 교정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수업은 주 5일 하되 하루에 보통 2시간씩이다. 학생에게 처음 교육한 것은 발음이다. 언어학습에서 발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나쁜 발음이 몸에 배면 고치기가 어렵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눈만 뻥긋뻥긋할 때처럼 힘팽기는 것도 없다.

또한 강조한 것은 4-2-1 학습법이다. 즉, 2시간 수업을 위해 4시간 예습을 하게 하며 1시간을 복습하게 한다. 어차피 언어학습은 학생이 많이 움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습을 레슨 시간의 두 배로 하게 한다. 그러니 수업시간에는 대화가 왕성하며 재미가 있다. 이어 복습은 당일 오후에 현장으로 가 직접 실습하게 한다. 오늘 주제가 우체국에 관한 것이었다면 책을 들고 우체국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언어의 정확성과 진보가 빠를 수밖에 없다.

맺음 말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 정도를 걷는 것이다. 요령을 피우며 대충 건너 뛸 때 그 여파는 평생을 간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말이 그냥 전래된 게 아니다. 선교는 어차피 장기전이다. 그러므로 타문화권 선교 헌신자는 혜안 가운데 순리적으로 발을 내 딛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언어학습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다. 아니다. 왕도가 있다. 무조건 용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방법론을 따라가야 한다. 감사하게도 서구선교기관들을 통해 좋은 노하우들이 우리 앞에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인 세계선교 관계자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각 선교부에 정책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jrsong007@hanmail.net

난 곳 방언은 토착민의 마음을 여는 키이다.
인간은 혀가 있는 한 어떤 언어도 배울 수 있다.
문제는 학습자의 열정과 반복과 지속성이다.

부활절 축시

부활의 아침

나삼진 목사
시인, OC샬롬교회 목사
(samjinna@msn.com)

그의 길 예비하던 세례 요한같이
동백(冬柏)의 뜨거운 정열이 준비종을 치면
부활의 축제는
내 누님 닮은 목련(木蓮)과 함께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소리,
죽음을 이기는 함성, 부활은
그 날에 우리도 함께 부를 노래

한국교회 130년, 미주 한인교회 113년,
곳곳에 다툼의 거룩한 습관
성공의 독주(毒酒)에 취하고
맘몬의 즐거움에 비틀거린다
화려한 어둠의 잔치로
땅의 기초가 무너져 내린다

하루 일 마치고 안식으로 가는 길
캘리포니아의 한 회중교회당에 걸린 무지개 깃발은
끝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것이니
다원주의의 가르침 이정표를 가로막는데
과학이 만들어 가는 전능(全能)의 세계,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토피아의 신기루들

다시 먼 길 떠나는 나그네여,
죽음을 이기나니, 부활은
절망을 이기나니
이제, 주신 지도를 다시 펼치고
나침반 새롭게 닦을지라

해를 삼킨 달처럼
벼랑 끝에서 맞는 부활의 새벽
신들매 다시 매는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6)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30)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 신학적 기초들, 그리고 철학적 기초들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초로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역사적 기초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Histor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앞서 살펴본 3가지의 기초들이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어떤 보편적이고 개별 문화를 뛰어 넘는 기초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역사적 기초들은 오히려 개별 문화에 초점을 둔 문화적 경험과 각 문화 상황의 특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란 어떤 과거의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주고 역사에 비추어 현재와 미래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역사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신앙공동체들의 경험들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시기의 역사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승되었고, 기록된 성경 이후에는 초대교회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대, 근세 시대, 그리고 현대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의 기록들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과거의 신앙 공동체들의 경험들에 대한 역사를 토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헤아릴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점이 역사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이에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로서의 역사적 기초 또한 바로 역사(History)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His-Story)요 신앙공동체들의 삶의 이야기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신앙공동체들의 교육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특별히 우리 한인 신앙공동체들의 삶의 이야기와 교육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구축해야 할 기초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의 교육적 경험들에 대해 성경적 증언들을 경청하여 마련해야 하며, 초대교회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대, 근세 시대, 그리고 현대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의 교육적 경험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인 교회들의 교육적 경험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을 통해 세련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초들은 때로는 교육적 통찰과 모범적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혹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 및 타산지석의 경각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교육을 견주어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교육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구약시대 신앙공동체의 주요 교육적 활동은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 교육 전통은 오늘날 기독교 교육을 해석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30년 전쯤부터 회자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개별 교회들이 많이 차용하는 교육 시스템인 쉐마 교육(물론 많은 비판이 이 시스템에 쏟아지고는 있지만) 혹은 부모 및 가정교육의 성경적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교육적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18세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부흥 위주의 순간적, 일회적 회심에 대한 비판과 경각심으로부터 브쉬넬의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것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점차적인 양육의 중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진정한 회심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기독교적 양육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다시금 회심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양자 간의 균형을 중시 여겨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양자 모두의 중요성과 회심의 점진성 및 계속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양육과 회심의 균형을 이루는 일에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인교회의 교육적 기초로서의 역사적 기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현재적 삶과 교육 및 미래적 비전에 대한 통찰과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한인교회의 교육적 기초로서의 역사적 기초를 다지는 일에 매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초대교회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대, 근세 시대, 그리고 현대시대의 신앙공동체들이 어떻게 교육하였고, 어디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리했을 때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었으며, 어떠한 것을 다시금 적용하고, 어떠한 것을 경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교육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수많은 책들이(인터넷만 검색해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요) 과거의 교육적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고, 각각의 시대의 교육적 경험들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천적 종합 및 비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즉 한인교회들의 과거 교육적 경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 100년을 지내면서 한인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과 글들 역시 많이 나왔으나, 한인교회교육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만 할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사역자들이 직접 이러한 역사 연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으나,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학계에 요구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그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 한인교회교육을 해석하고 미래의 교육을 올바르게 구상하고 합당하게 꿈꿀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교육적 역사들을 파악하고 기록하고 또한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의 현재를 강화하고 앞날을 위한 제언이 되어줄, 그야말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역사적 기초가 되어줄 '한인교회교육의 역사서'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역사적 기초는 현재적 삶과 교육, 비전에 대한 통찰과 해석의 틀 제공

사역자는 현재 섬기는 교회의 교육적 역사 기록 분석 자료 남겨야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지혜자의 삶(마7:24-27)찬543장

산상수훈은 천국백성의 세상에서의 삶으로 마쳐집니다. 이것은 천국백성이 어떻게 지혜자로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듣기만하고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돼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식으로 삼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의 마음은 요동하여 모든 일에 미련의 껍질에 싸인 사람처럼 자기주의자로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둘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고 확신이 있고 생활에 하나님 백성의 열매를 맺힙니다. 창수가 몰려오는 중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그 은혜로 충만합시다.

화 참된 선생으로서의 예수님(마7:28-29)찬94장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관찰한 무리들이 놀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교훈에 놀랐습니다. 율법보다 더 권위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맞서서 참된 율법의 모습을 유감없이 밝히셨습니다. 의와 인과 신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근본내용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하셨기에 놀란 것입니다(마23:23). 둘째, 권위에 놀랐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능가하는 해석을 통해 구약의 가르침을 더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그 분의 가르침을 마음을 받아 그 나라 열매를 맺힙시다.

수 문둥병자의 믿음(마8:1-4)찬343장

한센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이주님의 한 번의 접촉으로 완전 치료됨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첫째,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를 향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다는 단호한 믿음은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서 환영하는 절대 믿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는 그 유쾌한 믿음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귀합니다. 둘째, 주님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전능하니까 아무렇게라도 받아내고 떼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사를 높였습니다.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될 수 있고 아니면 안해주셔도 좋다는 겸손한 자세로 나갔을 때 그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 산앙을 활용하는 신자가 돼야합니다.

목 백부장의 믿음(마8:5-10)찬194장

천국 왕의 능력은 또 다시 참 믿음의 통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한 백부장의 믿음이 왜 그렇게 귀합니까? 첫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형태는 다르나 그는 자신이 그를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님의 실상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보잘 것 없음을 깨닫고 사양한 점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위대합니다. 둘째, 나아가 그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임한 그 나라는 말씀을 받는 마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신앙으로 천국을 누립시다.

금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마8:11-13)찬344장

이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주님이 칭찬하심은 어떤 연유입니까? 첫째, 그는 복음의 우수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온 천하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복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구약족장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믿음은 벌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밝히 들어나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반열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칭의, 야곱의 성화의 은혜가 백부장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현실문제만 아니라 현재 임한 그 세계를 알게 했습니다. 그 귀한 믿음이 그대에게도 있는가요?

토 연약을 담당하신 분(마8:14-17)찬401장

계속 이어지는 난치병의 기적적 치유는 주님의 능력에 관심을 쏟게 합니다. 문둥이 중풍병자 그리고 열병을 치유하신 주님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첫째, 그의 사랑이 치료의 원천이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단지 접촉으로 세우심은 그의 보이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그의 사랑의 강수는 흘러넘칩니다. 그 사랑의 강수를 마십시다. 둘째, 그 치유는 그가 친히 자기 백성의 연약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17). 이사야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이것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대속의 중보 사역만이 이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약함을 아는 자는 이 치료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의 십자가는 최대 최상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합시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